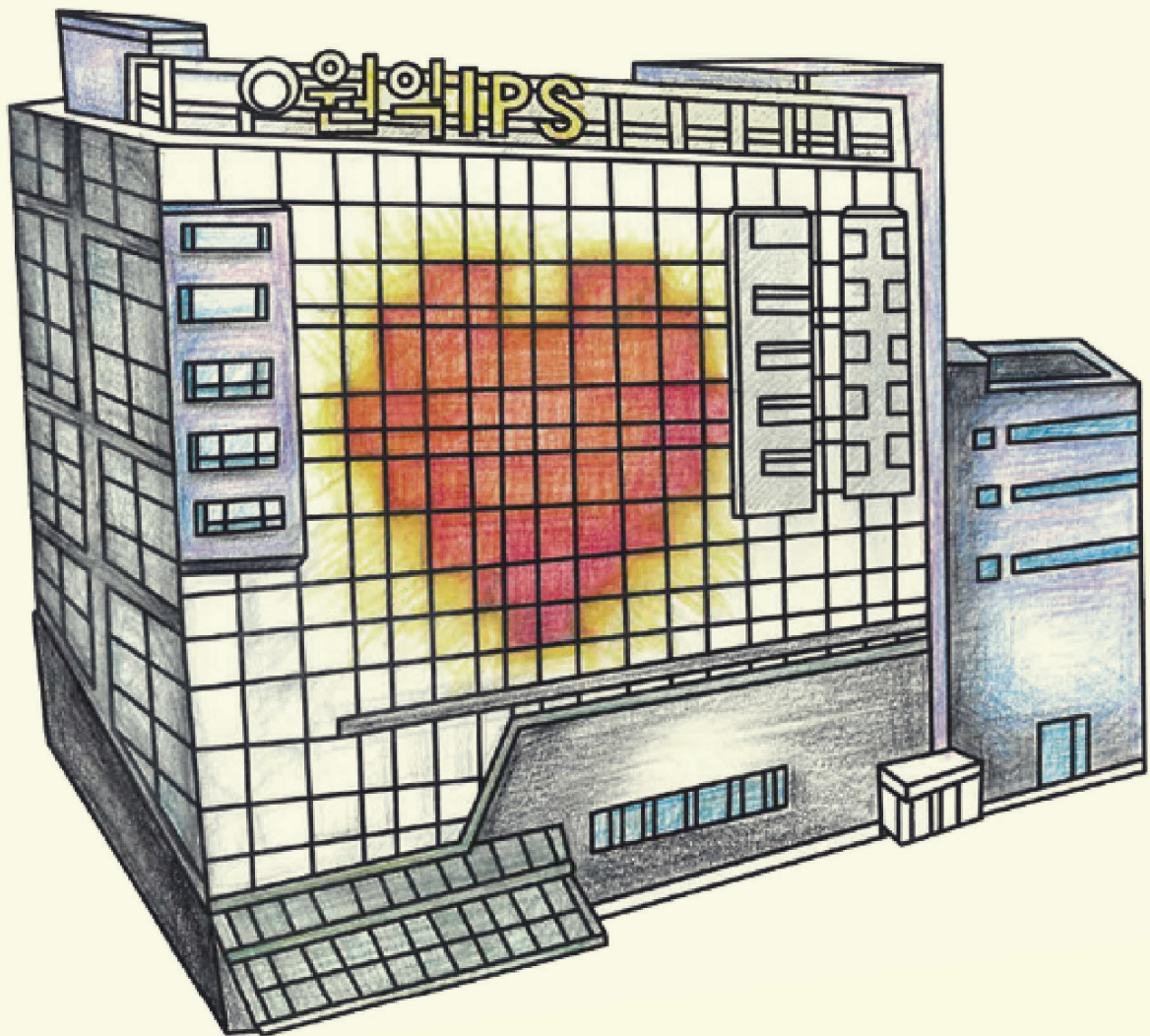


SUMMER

WONIK MAGAZINE 2020 VOL. 61

# WONIKIN



자유 - 열린 생각° 스스로 상상하라

The 9th Gallery  
명작예찬

DAVID HOKNEY  
DAVID HOKNEY  
DAVID HOKNEY  
DAVID HOKNEY



WONIKIN v. 61 — Freedom



세계적인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이 전시된다.

원익 판교 사옥 1층

**Pictured Gathering with Mirror, 2018**

Photographic drawing printed on paper,  
mounted on Dibond, Edition of 25  
83.0 x 224.0 (cm)/32.7 x 88.2 (inch)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화 1,018억에 낙찰되어 살아 있는 작가 중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 그의 그림은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의 삶으로 들어가 보자.

호크니는 1937년, 영국 요크셔의 브레드퍼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뛰어난 그림 실력으로 런던 왕립 미술학교 재학시절부터 이미 명성은 시작된 셈이다. 1961년 존 무어스 리버풀 전시에서 회화상 수상, 런던에서 개최된 <새겨진 이미지> 전에서는 예칭 동판화 부문 상을 받았다. 26살에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1967년 존 무어스 전시에서는 대상을 수상했다. 무명기간 없이 바로 핫 아이콘이 된 셈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2년 동안 대체복무를 마친 그는 1960년부터 동성애자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의 그림에서 우울함은 사라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영국에서 동성애가 불법이었다. 답답함을 느낀 호크니는 미국으로 넘어간다.

뉴욕을 거쳐 LA에 도착한 호크니는 “로스앤젤레스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찾을 수 있는 도시”라고 말했다. 존 레치의 소설 <밤의 도시>를 읽고 매혹되어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라는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틀을 완전히 깨트리고 세상 속으로 날아올랐다.

화창한 날씨와 뜨거운 햇살,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 자유로운 로스앤젤레스의 매력에 푹 빠져 이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캔버스에 담았으며, 당시 주류를 이룬 그림들은 물감을 두껍게 바른 추상화인데, 호크니는 반대로 구상화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얇게 바르는 것을 택한다.

아크릴 물감은 빨리 마르고 덧칠할수록 청량감을 잃는다. 따라서 되도록 수정 없이 정확히 그려야 하므로 모든 게 명확히 계산된 후에 붓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 눈으로 볼 수 없는 순간 포착한 장면들을 그림에 넣기 시작했다.

© 테이트 미술관



David Hockney

1937년 7월 9일 영국 소묘가, 판화가, 무대 디자이너, 사진가  
학력: 영국 왕립예술대학 / 첼시 예술대학교  
주요작품: 더 큰 침방, 예술가의 초상



예술가의 초상(1972)

© 테이트 미술관



Portrait of Nick Wilder(1966)

© 테이트 미술관



더 큰 침방(1967)

© 테이트 미술관

### 호크니의 대표작품들

수영장이 딸린 로스앤젤레스 주택으로 파스텔 색조의 단정한 집, 곧추서 있는 가느다란 아자수는 바람 한 점 없음을 보여주고, 주택 유리창에 비친 다른 건물의 그림자와 그 앞에 빈 의자가 웬지 모를 쓸쓸함을 느끼게 한다. 물이 크게 튀지만 그림은 외려 고요하다. 작년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전시한 데이비드 호크니 전에도 왔던 ‘더 큰 침방’이라는 작품이다.

호크니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보는 방식’에 대해 늘 고민했다. 이 그림에서는 물이 튀는 찰나의 순간을 보고 그것을 카메라로 포착한 후에 그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물이 튀는 그 순간, 그 장면이 이 그림의 포인트다. 1~2초도 안 되는 물이 튀는 순간을 캔버스에 담기 위해 그는 꼬박 2주를 매달렸다. 건물과 수영장을 그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겨우 며칠이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재 중에 왜 물이었을까?

호크니는 “물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그 어느 것도 될 수 있다. 어떤 색도 될 수 있고, 시각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말했다. 물은 구상화를 그리는 호크니에게 추상적인 장면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하여 호크니의 대표작품들이 탄생하였다.



나의 수영장에서 나오는 피터(1966)

© 테이트 미술관

# WONIKIN

Summer 2020 v. 61

자유 - 열린생각<sup>o</sup>  
스스로 상상하라  
FREEDOM

Freedom  
WONIKIN v. 61

### 사보기자단

- 원익홀딩스 소병오
- 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최예란
- 원익머트리얼즈 한정현
- 원익큐엔씨 이민희
- 원익 이기복
- 원익큐브 정은하
- 씨엠에스랩 박지현
- 원익로보틱스 서상원
- 원익엘앤디 박재진
- 하늘물빛정원 김기현
- 원익투자파트너스 최선묵

### 사보담당자

이호철 / 강무성 / 이효상

### 서재원

### <WONIKIN> 통권 제 61호

발행일 2020년 7월  
 발행인 박영규  
 발행처 원익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기획 디자인 PEOPLE PAGE 02.6674-7845

사보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익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2

화 전  
명작예찬

판교 사옥의 데이비드 호크니

# 10

Better Tech

똑똑한 먼지, 스마트더스트  
스마트더스트의 정체는 반도체 복합 센서

# 14

Trend #1

기업이 추구하는 문화  
새 시대를 향해 '나란히' 서다

# 18

원익월드

붉은 빛으로 물든 정열의 나라, 스페인을 느끼다  
- 16일간의 스페인 여행  
원익큐엔씨 김동현 부장

# 22

WONIK HERO 2020

원익인상 인터뷰  
원익큐엔씨 주윤관 상무

# 24

공감라운지

영화 [사라진 시간]  
씨엠에스랩 이윤두 대리

# 28

그웨이팀

우리들의 하루는 언제나 새롭다  
원익머트리얼즈 가스1팀

# 32

Boss vs. Leader

스마트한 솔루션범으로  
글로벌 No.1 에 다가서다  
원익아이피에스 설비개발부문 상무 최유지

# 36

Boss vs. Leader

집단지성으로 완성한 상생과 성장  
원익아이피에스 설비개발부문 전무 김재현

# 40

명단공개

열다섯 번째 원익인명사전  
원익큐브 최운철 과장  
원익홀딩스 홍광식 과장

# 44

Great Global Company

'초연결 시대'에서 보안과 안전의 길을 새로 열다  
DHL

# 48

멘토링

멘토 원익머트리얼즈 품질보증팀 여주은  
멘티 원익머트리얼즈 품질보증팀 권지영

# 52

슬기로운 직장생활

내 마음이 울어버릴 것 같을 때  
있으신가요?

# 54

Trend #2

비대면으로 살아보기

# 58

원익은 지금 ①

모두를 만족시킨 'CS 전진기지'  
원익 IPS 이천SITE 오픈식

# 62

원익은 지금 ②

열린 상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가다  
원익홀딩스  
원익아이피에스

# 64

원익은 지금 ③

으랏차차 소부장

# 66

행복일터

공채 6기에게 묻는  
원익이란?

# 68

News focus

#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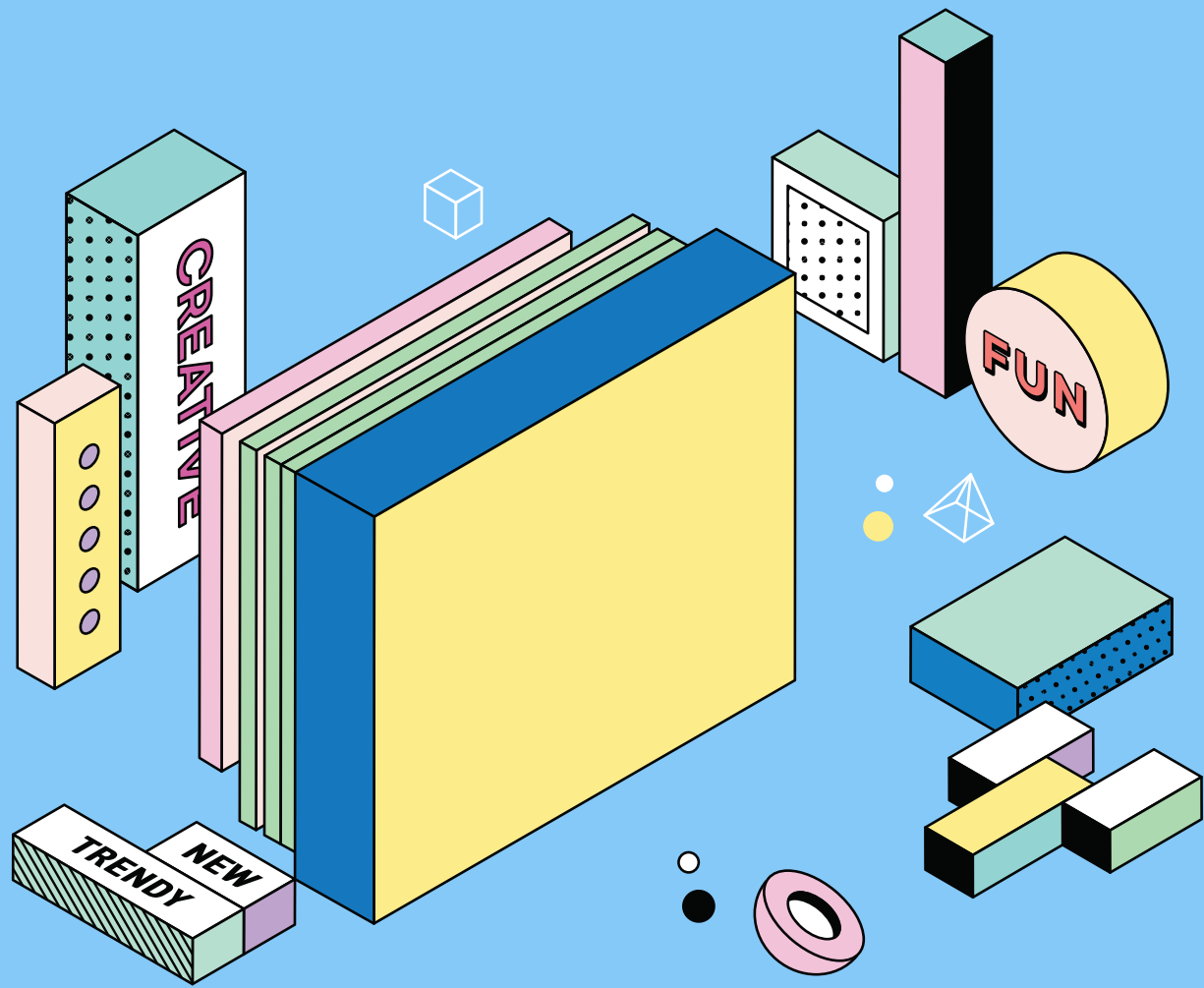
Thanks for U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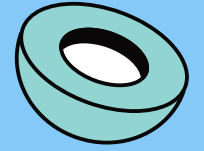
Theme. ....

# 자유 - 열린 생각

스스로 상상/상



section I. '월터'가 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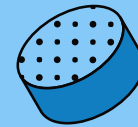
“강력한 상상은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의 현실은 그만큼 좁아진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상상의 세계를 압박해왔나요?

‘너는 당장 쓸 데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거 상상할 시간에 단어도 자 더 외워’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말이에요.  
언제나 눈앞의 결과로 치환되는 일들을 우선시하면서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상상을 하며 하루를 보냈나요?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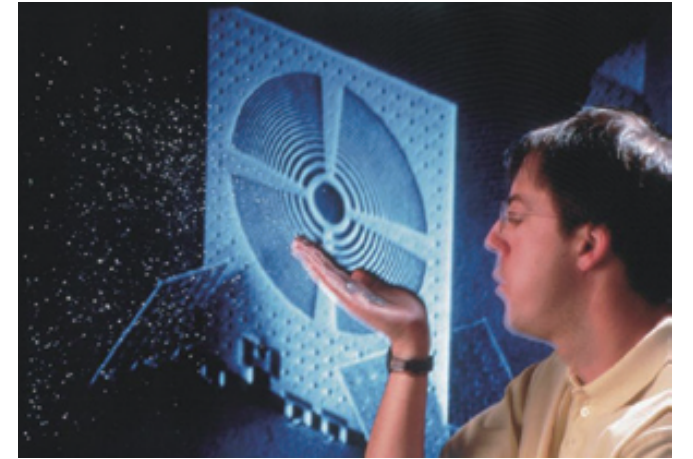
잠깐이라도 지금과 다른 삶을 그려봤다면,  
그리하여 상상의 끝에서 잠시 행복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하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영화<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처럼  
‘월터’ 대신 당신의 이름을 상상해 보세요.



똑똑한 먼지

스마트더스트



스마트더스트가 사물인터넷 세상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robosapiens.mit.edu)

스마트더스트의 정체는 반도체 복합 센서

스마트더스트(smart dust)는 초소형 센서들이 잔뜩 모여 있는 군집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다. 아주 작은 크기의 초소형 센서들을 먼지처럼 뿌려서 온도나 습도, 또는 압력 같은 물리적 정보들을 무선 네트워크로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센서의 크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마치 먼지처럼 흩날릴 수 있는 센서라는 뜻에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초소형 센서라고 해서 단순한 기능만 갖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눈에 겨우 보일 정도의 크기이지만, 컴퓨팅은 물론 양방향 무선 통신 및 태양전지 같은 에너지 저장 기능까지 탑재된 첨단 장치다.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인 멤스(MEMS)를 활용하여 센서를 구현하고, 감지된 정보는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들을 통해 자체 저장하거나 통신 기능을 통해 다른 센서 및 중앙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일종의 '반도체 복합 센서(semiconductor composite sensor)'인 셈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처럼 눈에 겨우 보일 정도의 초소형 센서를 개발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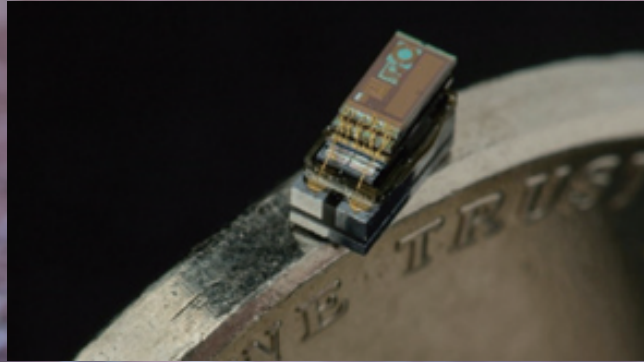
당시 미 캘리포니아대에 재직하고 있던 '크리스 피스터(Kris Pister)' 교수는 미 국방부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는다.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는 적국의 저격수를 잡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초소형 센서 개발을 의뢰받은 것이다. 초소형 센서들을 저격수가 잠복할 만한 장소에 촘촘하게 뿌린 다음, 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생포하거나 사살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피스터 교수는 "제아무리 뛰어난 저격수라도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면, '독 안에 든 쥐'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며 "국방부의 계획을 들은 후 곧바로 연구에 착수하여, 마침내 오늘날의 스마트더스트 시스템으로 발전한 기본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물론 개발된 스마트더스트의 크기가 처음부터 초소형은 아니었다. 당시 기술로는 성냥갑만 한 크기가 최선을 다한 모델이었기에 상용화를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미시간대의 연구진이 1㎢ 크기의 초소형 센서인 'M3'을 개발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스마트더스트의 크기는 5센트 동전의 테두리 두께와 유사할 정도로 초소형이다.  
(출처 michigan.edu)



다양한 분야로  
생태 관측까지  
재난 예방부터

눈에 겨우 보일 정도로 센서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서, 일명 '똑똑한 먼지'라고 불리는 스마트더스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생태 관측이나 생화학적 오염 측정, 또는 물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더스트를 활용한 모니터링 사례로는 미국의 석유회사인 쉘브론(Chevron)이 정유공장에서 사용하는 물 저장 탱크의 수위 및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이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또한 생태 관측에 활용된 경우로는, 인텔 연구소와 UC 버클리 대학이 공동으로 바다제비의 생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스마트더스트를 활용하여 무선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들 공동 연구진은 바다제비들이 모여 사는 섬을 대상으로 스마트더스트를 대거 살포한 뒤, 이들의 생활 습관을 모니터링했다. 이를 통해 번식과 산란 시기를 파악했고, 어떤 먹이를 즐겨 먹는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그때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바다제비에 대한 정보를 학계에 제공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생태 관측보다 더 파급효과가 큰 스마트더스트 사례로는 재해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모니터링 프로젝트가 있다. 네덜란드 트웬테대학의 연구진이 산불 예방을 위해 스마트더스트를 활용한 사례다. 현재 초소형 센서를 산에 뿌려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모니터링 센터에서 감지하여 산불 확대를 막는 일에 스마트더스트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농작물의 냉해처럼 사람이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재해에도 스마트더스트를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토양의 환경 정보를 수집하여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사례로는 인텔 연구소와 캐나다 농림수산청(AAFC)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포도 수확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에 위치한 20여 만㎡의 포도밭이 냉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기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UC버클리대와 인텔 연구소는 공동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金門橋)가 안전하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최상의 효과 기대  
의료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서 살펴본 사례들 외에도 스마트더스트의 응용 분야는 실로 무궁무진하다. 단독 기술 자체만으로도 활용도가 높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다른 여러 기술과 결합하는 진정한 의미의 IoT 기술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런 기대효과 중 하나가 스마트더스트를 사용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하철이나 사무실 등 주변에 이 센서를 뿌려 놓으면, 온도와 빛, 그리고 진동 및 성분 등을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도 스마트더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다. 지진 발생 후 고층 건물의 안전도를 검사할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는데, 진동을 감지하는 스마트더스트를 미리 뿌려두면 진동정도를 미리 계산해서 경보를 내려 주어 수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스마트더스트를 사용하여 포도밭의 냉해를 예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futureristspeak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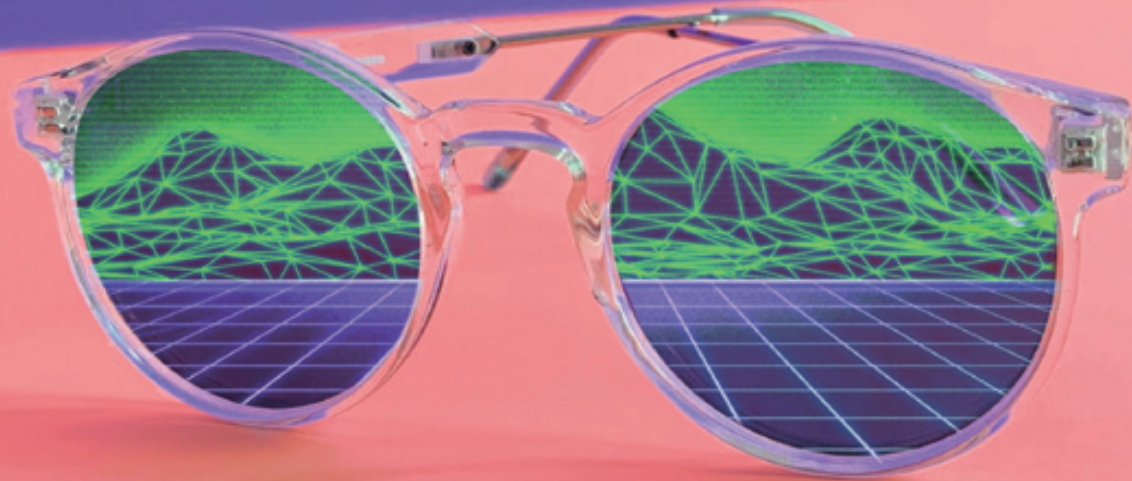
이 밖에 사무실 근무자의 옷에 스마트 더스트를 부착하면 실내온도를 측정하여 건물의 냉난방 장치로 신호를 보내주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아기들의 기저귀에 스마트더스트를 붙이면 아기의 위치와 상태를 일일이 감지하여 알람을 울리게 만들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용으로 활용될 스마트더스트의 미래다. 스마트더스트를 인체에 삽입하면 사람의 다양한 생체 신호를 수집하고 이를 치료 및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WON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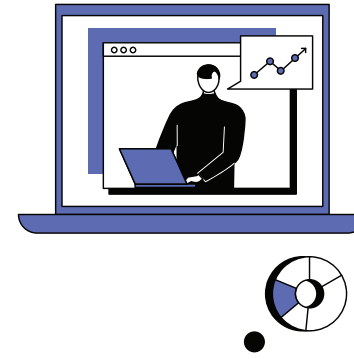


직급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수직적 조직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력과 집단지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수직적 조직 문화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나란히 서기'에 나선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조직을 혁신하고 있을까.

# 새 시대를 향해 '나란히' 서다



FOR THE NEW GENERATION



## '애자일'로 작고 빠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을 키워드로 삼는다.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른 실시간 정보 공유로 모든 분야의 트렌드가 한순간에 바뀌고,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역동성에 빠르게 대처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많은 기업은 소규모 팀 중심의 애자일(Agile)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 직급이 세분화 되어 있어 결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던 과거의 수직적 조직에서 벗어나, 구성원을 각 프로젝트팀으로 세분화하고 각 팀이 대부분의 결정을 갖는 형태로 인적 구성 틀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모바일 게임사 중 한 곳인 슈퍼셀은 각 개발 프로젝트별로 나누어진 작은 셀(팀)들의 집합체다. 각 셀은 필요한 만큼 시간과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프로젝트의 존폐도 그들 스스로 결정한다. 슈퍼셀은 이러한 방식으로 전 세계 게이머에게 두루 호평받는 고품질의 게임을 꾸준히 내놓을 수 있었다. 한편 SK텔레콤은 얼마 전 의사결정 구조에 젊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젊은 애자일 조직 '주니어 보드'를 꾸렸다. 20·30대 직원이 주축을 이루는 이 조직을 통해 모든 서비스 출시 전 젊은이들의 감성을 사로잡는 콘텐츠인지를 미리 파악하겠다는 것. 이 같은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적어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춘 거름망 역할은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슈퍼셀의 컬처라운지



### 소통 활성화를 부르는 '호칭' 변화

'말이 사고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있을 만큼,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는 말은 생각보다 커다란 힘을 지닌다. 이러한 말의 힘이 수평적 조직 문화 형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취업 준비생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에 꼽힌 IT 기업 카카오는 수평적 문화를 훌륭하게 안착시켰는데, 모두가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탄탄하게 마련하기 위해 영어 호칭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예컨대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사내에서 각각 메이슨·선으로 불린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한결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가운데 격의 없이 토론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카카오 측의 설명이다. 굳이 영어 이름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이름 뒤에 '님'을 붙임으로써 존경을 표현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 원의 머트리얼즈도 올 5월부터 직급과 관계없이 서로를 '000님'으로 부르고 있다.**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면, 생각의 밑바탕인 말부터 바꾸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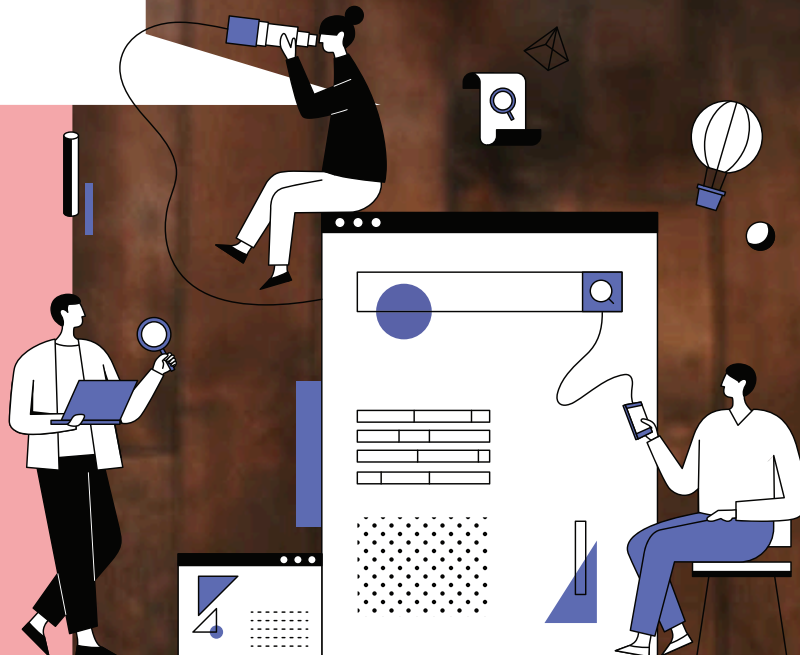
### 수평적 공간이 수평적 조직을 만든다

수평적이고 재미있는 사무공간을 구축함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소통 빈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 6월 사옥을 옮기면서 공간에 커다란 변화를 줬다. 카페처럼 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워킹라운지'는 기본, 가상현실(VR)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C'와 다락방 콘셉트로 꾸며진 '애틱 O',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면캡슐 등을 두루 마련했다.

그날그날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자율좌석제나 일할 좌석이 매일 무작위로 배정되는 랜덤좌석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회사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 오피스를 사무실로 활용하는 기업도 등장했다. 조직 문화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간 활용 제도를 통해 평소 마주치지 못했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러한 만남 속에서 창의적 집단지성이 꽃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원가에 집중하고 싶을 때 조용하고 익숙한 집 대신 백색소음이 있고 낯선 카페를 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WONIK**



롯데카드의 '디지털 C'와 '애틱 O' 내부



# Spain



16일간의 스페인 여행

붉은 빛으로 물든 정열의 나라, 스페인을 느끼다

“해외 배낭여행”이란 제도를 처음 들었을 때, 이런 기회가 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많은 업무와 자리를 비우면 동료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망설여지긴 했지만, 머릿속에서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게 평생 기억에 남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운이 좋게 선발되어 2주간 스페인을 갈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비행기 표, 숙박, 주요 관광지 티켓팅, 스페인 내부 기차표 예매... 막상 되고 보니 해야 하는 업무가 많았다. 스페인 기차표를 인터넷으로 예매했는데 카드결제는 되었고, 티켓이 오지 않았고 이메일 회신이 2주 뒤에 오는 등 한국과는 달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스페인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_\_\_\_\_ **WONIK**

*Barcelona*

*Madrid*

*Valencia*

*Sevilla*

*Toledo*

*Granada*

# 꿈꿔왔던 낭만을 실현하다



- 바르셀로나
- 바르셀로나 성가족 대성당
- 발렌시아
- 토마토축제
- 마드리드
-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 세비아
- 톨레도
- 그라나다



원익 큐엔씨  
김동현 부장  
2017. 8. 25 - 9. 9

원익에는 원익인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해외 배낭여행 프로그램이 있다.  
매년 지원을 통해 30명을 선발하여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 자유롭게 떠나보는 기회를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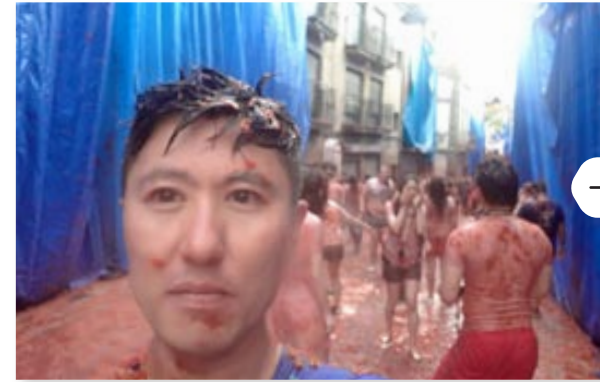
## STORY 1 - 바르셀로나

첫 번째 여행지는 스페인 최대의 도시 바르셀로나였다. 도착하기 일주일 전 람블라스 거리에서 무장단체 IS의 테러가 일어나 도착 당일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거리에 꽃을 헌화하고, 이 자리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었다. 람블라스 거리에서 "가우디 투어"를 신청하여 투어 일행을 만나 최대 걸작으로 손꼽히는 바르셀로나 대성당의 역사 이야기와 함께 건축물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역시 최고의 역사 유적지는 투어 가이드가 있어야 100% 즐길 수 있다. 베스트 샷 VIEW POINT도 소개받아 뒷모습으로 한 컷 남겨 보았다.



## STORY 2 - 발렌시아

사실 이 스페인 여행의 가장 큰 목표이자 어릴 때부터 로망인 "토마토 축제"를 참가하기 위해 부늘(발렌시아 인근 소도시)에 도착했다. 축제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토마토를 실은 트럭 수십 대가 거리로 진입하니 사람들이 갑자기 동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니편 내편없이 트럭에서 부여준 토마토를 아무에게나 막 던졌다. 생토마토를 집에서 아내에게 던진다면 아마 한 달간은 밥 못 얻어먹을 정도였지 싶다. 약 30분간 토마토를 던지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장관이었다. 모든 거리가 빨강계 물들고, 토마토 주스 위에서 사람들이 썰매를 타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 다시 한 번 하려면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나름 재밌었던 이색 경험이었다.



## STORY 3 - 마드리드

스페인 여행의 세 번째 목적지로 수도 마드리드를 들었다. 마드리드는 순전히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위해 방문했다. 주말 저녁마다 TV로만 보던 경기를 실제로 본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정말 빨리 뛰었다. 경기 당일 부푼 꿈을 안고 경기장을 향했고, 경기 2시간 전부터 스페인 사람들의 응원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다. '레반테'라는 상태팀(리그 하위 팀)과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자, 사람들의 아우가 장난이 아니었다. 경기장 티켓이 20만 원 넘는 수준이며,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 연봉 수준이 세계 최고이다 보니 팬들의 아우가 빗발쳤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 사인을 받기 위해 경기장 밖에서 기다렸다. 경찰이 말을 타고 사람들을 선 밖으로 물러서게 했는데 말굽에 발을 밟혔고 집에 오는 길에 발을 살펴보니 엄지발가락이 다 짓물러서 약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호~영)



## STORY 4 - 세비아 / 톨레도 / 그라나다

스페인에 왔으니 현지인처럼 해봤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지막이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엔 씨에스타라고 하는 낮잠을 즐기며, 현지인 같은 여유를 즐겼다. 저녁엔 카페에서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밤 10시가 되어도 거리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약 1주일 정도 스페인에서 지내다 보니, 이곳의 문화와 생활 스타일에 맞춰져 상당히 느긋하게 즐기는 나를 발견하였다. 세비아 - 톨레도 - 그라나다 등 남부 지방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맑은 하늘과 건축물들을 둘러보면서 참 문화적으로 강성한 제국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러한 유적 및 관광지를 여유롭게 둘러 볼 수 있는 나는 행운아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부 투어를 여유롭게 마쳤다.



# 혁신상

## 원익큐엔씨

주요관 상무

### 끝없는 도전의 '최초맨'

- 1992년 국내 최초 메탈 할라이드 램프 개발
- 2006년 국내 최초 엑시머 램프 개발
- 2018년 세계 최초 임플란트 표면 개질용 엑시머 램프 설비에 172nm 파장대 적용

주요관 상무의 발자취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여럿 따라붙는다. 작년에는 세계 최초로 172nm 파장대를 활용한 '임플란트 표면 개질용 엑시머 램프'를 개발, 2019 원익인상을 수상했다.

#### 또 하나의 '최초'를 개척하다

2019 원익인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 준 '임플란트 표면 개질용 엑시머 램프(이하 임플란트 엑시머 램프)'는 나사처럼 생긴 턱뼈 이식용 임플란트 픽스처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말끔하게 제거하는 램프입니다.

임플란트 픽스처의 자외선 표면처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오염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턱뼈에 이식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픽스처가 자리 잡는 시간도 길어지죠. 한편 우리 몸은 마이너스 이온을 띠는데, 임플란트 픽스처의 주재료인 산화티타늄도 마이너스 이온을 띠니다. 그런데 표면처리를 제대로 해 주면 픽스처가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고, 몸과 픽스처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서 이식 상태가 한결 단단해집니다. 또한 물에 흡착되는 성질인 친수성이 강해져서 환자의 피가 픽스처에 잘 스며들고, 덕분에 시술 성공률이 한층 높아집니다. 표면처리를 한 픽스처를 이식하면 하지 않은 픽스처에 비해 치료소요 시간이 2배가량 단축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죠. 따라서 임플란트 업체에 자외선 표면처리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와중에 2017년 12월, 모 임플란트 업체로부터 임플란트 표면 개질에 사용할 수 있는 엑시머 램프를 공급해 달라고 제안받았는데요. 당시만 해도 그 업체에서 임플란트 표면 개질 설비를 직접 만들고 있었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램프만 따로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지켜보니, 설비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시행착오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우리가 직접 설비를 개발해서 공급하겠다'고 제안했고, 2018년 10월에 개발 완료 후 지금까지 설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비는 램프를 한쪽 면에 설치하고 임플란트 픽스처를 천천히 돌려서 표면처리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처리시간이 최소 15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걸렸습니다. 반면 저희는 사방에서 빛을 쬐서 한 번에 표면이 개질될 수 있도록 했고, 뒤면에 반사막을 덧대서 빛이 불필요한 곳에 방사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개발한 설비를 사용하면 단 20초 만에 충분한 표면 개질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세계 최초로 임플란트 표면 개질 설비에 172nm 파장대를 사용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특허 11건을 출원, 순차적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해외 특허 출원도 준비 중입니다.

#### 최초를 넘어 '최고'에 다가서다

저는 1992년부터 줄곧 램프 외길만 걸어왔습니다. LED 램프가 보편화되기 전, 경기장이나 주유소에 주로 쓰였던 메탈 할라이드 램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죠. 2006년에는 엑시머 램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CD 디스플레이 기판을 만들 때는 표면이 깨끗해야 하는데, 아무리 닦아도 유기물 같은 오염물이 남아 있습니다. 엑시머 램프는 이것들을 172nm의 강력한 빛 파장으로 세정·기화시키는 역할을 맡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국내 유수의 디스플레이 업체에 램프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플란트 표면 개질용 설비에 세계 최초로 172nm 파장대를 활용했으니, 돌이켜 보면 최초라는 말을 여러 겹 쌓으며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에는 물론 제 노력도 녹아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희 팀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지원이 없었다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부문에는 저를 포함해 12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제법 따뜻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가 하면, 후배 팀원의 주관을 인정하고 원하는 대로 일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싶을 때만 조언을 해 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업무를 이끌어 나가죠. 상명하복식으로 일할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이 방법으로 모두의 능력과 부문의 역량을 탄탄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요즘 램프사업부문의 최대 관심사는 사업 아이템 확대와 매출 규모 신장입니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임플란트 엑시머 램프 설비를 활용해 정형외과 등에서 쓰이는 또 다른 이식용 제품들을 표면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신규 개발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살균 및 멸균용 제품 개발도 저희의 당면 과제인데요. 자외선램프의 살균 효과는 잘 알려졌지만, 망막에 손상을 주거나 피부암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활용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222nm 파장대는 인체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표면의 세균과 바이러스만 살균할 수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죠. 저희도 이를 활용해, 코로나19 시대를 무사히 헤쳐나가기 위한 안전한 자외선 살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연구 개발과 과감한 도전으로 회사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는 부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감라운지

# 사라진 시간

정진영 감독

Recommend

이윤두 대리  
씨엠에스랩

BOOK

WONIKIN v. 61

Freedom



movie rounge

## ME and ME 영화 [사라진 시간]

영화를 본 관객에게 제목과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 정진영 배우님의 감독 데뷔, 조진웅 배우님의 주연으로 관객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한 영화인 '사라진 시간'의 첫 감상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어느 외지인 부부의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시작합니다. 철창으로 인해 도망치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른 부부를 조사하는 형구(조진웅)는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느끼고 마을 주민 모두를 의심합니다. 조사를 위해 주민 모두를 모은 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싸여 만취한 어느 밤. 여기서 영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형구는 화재의 흔적이 사라진 사건 현장에서 눈을 뜹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곧장 가족들에게 돌아가지만, 자신의 집, 경찰이었던 직업, 사랑했던 가족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뒤바뀐 현실, 이전의 삶을 찾기 위해 조사하는 형구는 잠에서 깬 이후의 초등학교 교사인 삶과 이전의 형사의 삶 중 어느 삶이 진실인지 답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영화는 관람 직후에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영화였습니다. 답을 주지 않고 너무나 많은 실마리가 오픈된 채로 끝나 모든 것을 관객의 몫으로 남겨줍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영화는 영화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동안 연기자로서 여러 배역의 연기를 통해 많은 삶을 살아본 정진영 감독은 질문과 답을 제시하는 혼하고 익숙한 자기계발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객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같을까?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정말 내가 맞을까? 나의 진짜 삶은 무엇일까?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불쾌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영화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이 영화를 통해 나에게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씨엠에스랩 화장품연구소  
기초연구팀 이윤두 대리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미스터리하고 미묘한 맛”  
자신의 삶을 추적해 나가는 예측불허의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며  
영화적인 재미를 전하는 한편, 삶이란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만드는 깊이 있는  
주제 의식을 통해 극장 문을 나서는  
관객들에게 오래도록 남는 깊은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

영화 <사라진 시간>



**신선한 설정과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전개,  
시간 순삭! 지금껏 본 적 없는  
미스터리 드라마의 탄생!**

한적한 소도시의 시골 마을, 외지인 부부가 의문의 화재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 형구는 마을 사람들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단서를 추적하던 중, 하루 아침에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충격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 집도, 가족도, 직업도 내가 알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과연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사라진 시간>에서 ‘형구’로 분한 조진웅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사라진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필사의 추적을 하는 혼란스러운 인물의 심경을 특유의 동물적인 연기 감각으로 촘촘하게 그려내며 다시 한 번 충무로 대표 배우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영화 스토리

화재 사건의 수사를 위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온 형사 ‘형구’. 처음엔 평범한 화재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묘한 낌새의 마을 주민들부터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다룬 신선한 설정과 과연 ‘형구’가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결말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묘한 스토리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장르적 쾌감과 함께 색다른 재미를 전한다. “삶의 정체성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의식을 미스터리 드라마의 형식을 빌려 관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길 원했다”라고 연출 의도를 전한 정진영 감독. 여기에 ‘형구’ 역을 맡은 배우 조진웅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형구’가 느끼는 심리적인 다이내믹함이 상당했다. 관객들 또한 이를 함께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또한 비밀을 지닌 외지인 교사 부부로 극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이끄는 배수빈과 차수연,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웃이자 동시에 수상한 행동을 일삼는 마을 주민으로 분한 정해균과 장원영, ‘형구’와 연결고리를 가진 여인으로 등장해 혼란스러움을 가중하는 신동미와 이선빈까지 탄탄한 내공을 가진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져 극의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감독 소개

연기 인생 33년 차 관록의 배우에서 빛나는 신인감독으로, 정진영의 꿈은 이루어진다!

1988년 연극 [대결]로 데뷔한 이래 연극, 영화, 드라마는 물론,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까지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옴. <황산벌><왕의 남자><즐거운 인생><님은 먼곳에><평양성> 등 이준익 감독의 페르소나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는 천만 영화 <왕의 남자><7번 방의 선물><국제시장><택시운전사>부터 <또 하나의 약속><클레어의 카메라><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등 예술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갖춘 영화까지 전방위적 활약을 펼치며 연기 경력 33년을 맞이한 관록의 배우, 그런 그가 오랜 기간 꿈꿔왔던 영화 연출에 도전, <사라진 시간>의 감독으로 관객들과 만남을 앞두고 있다. ‘형구’ 역할을 맡은 배우 조진웅은 감독 정진영에 대해 “누구보다도 배우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감독이다. 배우만이 가지는 호흡을 알고, 전적으로 믿어줬기 때문에 편하고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감과 신뢰감을 드러냈다.

WONIK

# 우리들의 하루는

# 언제나 새롭다

매일 새로운 상황과 마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연구열로 끊임없이 신규 가스를 개발하고 기존 가스를 개선·보완하는 사우들이 있다. 원익머트리얼즈 가스 1팀이 그 주인공이다.

원익머트리얼즈 가스1팀



저희 팀은 회사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스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저희에게로 오고,  
저희는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이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렇듯 회사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송한덕님과  
팀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노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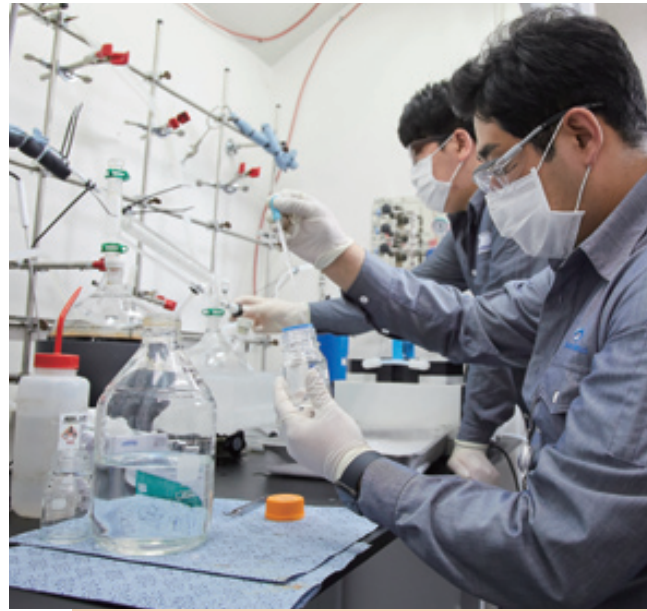
WONIKIN v. 61

29

### 새로운 특수가스, 우리에게 맡기세요!

가스 1팀은 원익머트리얼즈 연구소가 설립됐을 당시인 2007년 3월에 조직됐다. 원익머트리얼즈의 주 사업 분야인 특수가스의 합성·정제·분석·소재 평가 등을 통해 신규 가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가스의 수율 및 순도를 높이는 일을 맡는다.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요구에 대응하는 것도 가스 1팀의 몫이다. 송한덕 팀장과 10명의 팀원이 함께 일하는 가스 1팀은 업무에 따라 4개 파트로 나뉜다. 먼저 기존 소개 대체 파트는 외부에서 구매한 후 정제하여 고객사에 납품하는 가스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원가 절감 및 수익성 향상을 도모한다.

신규 가스 개발 파트에서는 반도체 공정의 정밀도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더욱 효율 높은 가스를 개발하고, 공정 평가 파트에서는 신규 가스를 반도체 설비에 직접 적용하며 효율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및 파일럿 구축 파트는 신규 가스 양산 공정을 시뮬레이션해 예견되는 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샘플 양산 가스를 초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안전하게 맞추는 '업무 퍼즐'

신규 가스를 개발하고 기존 가스를 개선하는 일을 하다 보니, 가스 1팀은 매일같이 새로운 과제와 맞닥뜨린다. 충분히 부담스러운 만한 상황이지만, 팀원들은 오히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했을 때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노재현은 이를 '퍼즐'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해 나간다.

“조각 수가 굉장히 많은 퍼즐을 우르르 쏟아 놓으면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그림과 비교하며 조금씩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놓다 보면 어느새 멋진 그림이 완성되죠. 저희의 업무도 퍼즐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바를 최종 목표로 삼고, 합성·정제 등을 하나하나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원하는 성능의 가스가 완성되면 정말 짜릿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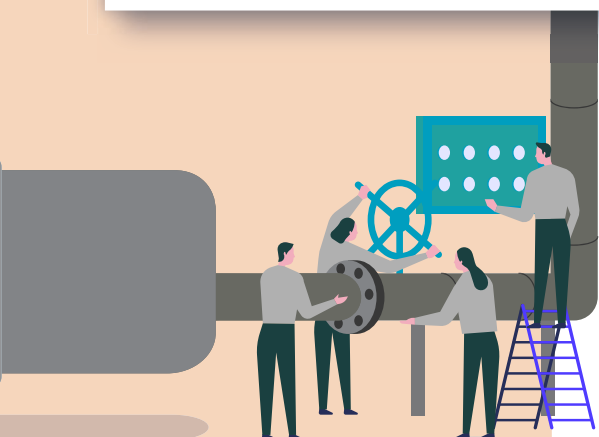
### 함께 만들어 가는 또 다른 새로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일은 혼자 힘으로 버겁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상책. 이런 측면에서 가스 1팀은 자타공인 훌륭한 팀워크를 갖추고 있다. 시간이 되는 팀원끼리 수시로 모여 차를 마시며 아이디어와 고민을 나누는 한편, 다른 팀원이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발 벗고 나서는 것. 김태형과 신희준은 “서로에 관한 관심만 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라며, 가스 1팀의 팀워크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들이 무거운 임무를 수월하게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배경이다.

가스 1팀은 최근 신규 가스 개발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을 해외에서 수입했지만, 작년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 이후로 반도체 공정 특수가스를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활성화됐다. 가스 1팀 또한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관련된 신규 가스가 고객사 평가 단계에 들어섰다. 내년 말쯤이면 회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연구 개발에 임하겠다는 가스 1팀. 이들이 특수가스 업계에서 만들어 갈 또 다른 새로움을 기대해 본다.

#### 가스1팀 업무 및 성과

- 
**신규 가스 개발 및 기존 가스 효율 개선**
- 
**반도체 공정 특수가스 국산화**
- 
**개발 신규 가스 양산 공정 설계 및 초도품 생산**







the 8<sup>th</sup> leader

최유지 상무가 입사한 후, 소프트웨어팀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모든 업무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WISE(Wonik IPS Software Eclipse)'가 도입되어 개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최 상무는 선두에 서서 업무 혁신을 실천하는 솔선수범으로 팀 체질을 바꿨다. 그는 지금도 '스마트한 솔선수범'으로 세계 1등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 스마트한 솔선수범으로 글로벌 No.1 에 다가서다

### 업무 혁신의 첫 발을 떼다

최유지 상무는 90년대 초부터 반도체 설비 소프트웨어 개발 외길만 걸어온 이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선진 기업들을 두루 거친 뒤, 2018년 11월 원익아이피에스 설비 소프트웨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당찬 비전을 품고 입사했다.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원익아이피에스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조직 가치인 '애자일(Agile)'을 빠르게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No.1'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CHOI YOON JI

상무 최유지

원익아이피에스 설비개발부문 소프트웨어 1·2팀





Wise

## Wonik IPS Software Eclipse

### 소프트웨어 개발, 'WISE'로 지혜롭게

최유지 상무에게는 선진 기업에서 보고 익힌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했다. 이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강구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개발한 업무 시스템 'WISE(Wonik IPS Software Eclipse)'를 2019년 4월에 전격 도입했다. WISE는 소프트웨어팀의 모든 업무를 총망라한 시스템으로, 130여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를 통해 업무를 진행·공유하고 있다. 구성원 개개인과 각 파트가 가지고 있었던 설비 소스코드(Source code)의 95% 이상이 WISE에 등록돼 있으며, 소스코드 한 줄을 수정하더라도 시스템에 변경 지점과 이력이 저장된다. 소스코드에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설비가 오작동합니다. WISE 도입 이전까지는 이토록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핵심을 직원 개개인과 각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이 상당히 어려웠죠. 반면 WISE 도입 후에는 모든 소스코드가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개선·보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 상무는 WISE에 소스코드를 자체 점검·시연하고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탑재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설비업체 최초로 소프트웨어 품질을 전담 관리하는 SQA(Software Quality Assurance)파트를 신설, 고객에게 한층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업무를 열심히 하는 태도는 성과를 내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중요한 점은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입니다. 저는 모든 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공유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한편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업무 전반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했죠.”

효율적으로 업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익아이피에스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업무 플랫폼·소프트웨어 성숙도 등 10가지 항목을 세계 최고 기업과 비교·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개발 프로세스부터 바꾸기로 결심했다.



### 모두를 설득시킨 ‘앞장서는 리더십’

지금은 팀원들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시스템이지만, 처음 WISE를 도입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랐다. 모든 업무 결과를 시스템에 올려야 했기에 불편해하는 팀원들도 있었고, 처음 써보는 시스템이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 최유지 상무는 이러한 반응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세상 모든 새로움에는 반작용이 있기 때문. 그는 여기에 개의치 않고, WIS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솔선수범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몸소 알렸다. 그러자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WISE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 자신에게 정직하자’는 신념으로 일했습니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우직하게 일하면서 주변의 믿음을 쌓아 왔죠. 원익아이피에스 식구가 되고 WISE를 도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WISE는 옳은 방향이었고, 이를 팀원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효용성을 증명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래서인지 현재 WISE는 소프트웨어팀 업무에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업무 성과와 효율도 전보다 매우 높아졌습니다.”

‘앞장서는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유지 상무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의 업무 혁신도 가장 먼저 나서서 추진하고 실천할 것이다.

WONIK

### 최유지 상무 특징 & 성과

- 객관적 업무체계를 중시하고 솔선수범하는 ‘스마트한 행동형 리더십’
- WISE (Wonik IPS Software Eclipse) 개발·도입
- SQA (Software Quality Assurance) 파트 신설

“상무님은 업무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팀원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업무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일상 속 실천을 통해 성공의 길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덕분에 소프트웨어팀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원익아이피에스가 ‘글로벌

No.1’으로 도약하는 그

날까지 상무님,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뒤통을 맞겠습니다!”



설비개발부문 소프트웨어팀  
김상원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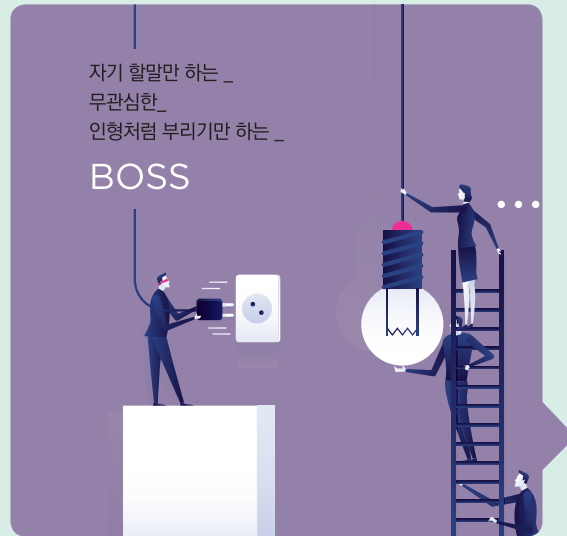
혁신을 위해 각각의 능력을 갖춘 여럿이 머리를 맞대는 것. 우리는 이를 '집단지성'이라 부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으로 꼽는다. 설비개발부문을 총괄하는 김재현 전무는 모든 구성원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업무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상생'과 '성장'이라는 값진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전무 김재현

원익아이피에스 설비개발부문



KIM JAE HYUN



자기 할말만 하는 \_  
무관심한 \_  
인형처럼 부리기만 하는 \_

BOSS

# 집단지성으로 완성한 상생과 성장



모두를 한 방향으로 이끄는 \_  
협력을 성장으로 만드는 \_  
배려와 공감으로 리드하는 \_

LEADER

## 흩어진 역량을 하나로 모으다

원익아이피에스 설비개발부문은 반도체 설비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로, 김재현 전무가 부문을 이끌고 있다. 그가 입사하던 2017년 10월까지만 해도 설비개발부문은 업무별 독립적인 팀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설비를 개발하더라도 유기적인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만큼 개발 효율도 떨어졌다.

김재현 전무는 설계 엔지니어로서 해외 선진기업 여러 곳에서 일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있었다. 그보다 앞선 대학 시절에는 설계 방법론을 전공하며 효과적인 협업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을 두루 습득했다. 그의 이론적·경험적 지식에 비춰볼 때, 기존의 개발 업무 형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김 전무가 입사하자마자 조직 개편에 돌입한 이유다.

“플라즈마·시뮬레이션·기구설계·전장설계·소프트웨어 등 각각 설비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팀들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총 8개 팀을 하나로 합쳐 설비개발부문을 신설했죠. 입사한 지 두 달여 만에 조직 개편 작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디다만, 우리 회사의 설비 개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행과제였던 만큼 경영진과 함께 빠르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 틀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기 시작했죠.”

### 김재현 전무 특징 & 성과

-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고  
밀바탕을 마련하는  
‘집단지성형 리더십’
- 디자인 콘셉트·디자인 리뷰  
확대 및 과제 중심 고과 체계  
마련
- 고객사와의 기술적 통찰력  
공유를 위한 4층 실험실  
확대

### 폭넓게 마련한 ‘협업의 장’

하나의 설비 개발 프로젝트를 다각적 시선으로 분석하고 종합적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밀바탕이 마련됐으니, 다음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었다. 새로운 설비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첫걸음이 바로 ‘콘셉트 디자인’이다. 신규 설비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하는 과정으로, 이 시간은 길고 치열할수록 좋다.

“콘셉트 디자인 단계에서 잘못된 점을 찾을 때 드는 비용이 1이라면, 설계 단계에서는 5가 들고 고객 인도 단계에서는 10이 듭니다. 이를 흔히 ‘1:5:1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제대로 된 콘셉트 디자인을 마련해야 하고, 당연히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콘셉트가 제대로 잡히면 뒤의 과정들은 대체로 수월하기 마련이죠.”

김재현 전무는 이와 함께 과제별로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디자인 리뷰’ 자리도 마련했다. 예컨대 설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하나의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고 가장 좋은 답을 도출하는 식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김 전무는 모든 조직에 ‘금요일 오전에는 회의를 잡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자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디자인 리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의 고과 시스템도 팀 중심에서 과제 중심으로 바꿈으로써 성과와 보상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부여했다. 덕분에 이전보다 품질 개선 건수가 해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개발 설비 목표도 97% 이상 달성할 수 있었다.

WONIK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되는 일과 잘한 일?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되는 일과 잘한 일?  
청소년 시기에 적당한 비행을 못 해본 것을 후회하고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어 수차례 도전했으나  
담뱃값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던 것과  
독립해서 사는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국가 주요통계(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지표에  
이바지하는 사람

감정 조절에 실패했던 잊고 싶은 순간?  
별것도 아닌데 화났을 때. 지나고 보면 왜 그랬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노하우?  
롤러코스터 타기, 비행기 타고 떠나기



나의 버킷리스트는?  
둔촌주공 특별공급 1순위 당첨

이게 행복이구나~ 느낀 순간?  
집에서 혼자 대청소를 끝내고 뿌듯한 마음으로  
둘러보며 누워 있을 때



\*\*\*  
**최우철**  
崔濤喆  
운이 철철넘치는 남자

---

원익큐브  
경영지원본부 업무개선팀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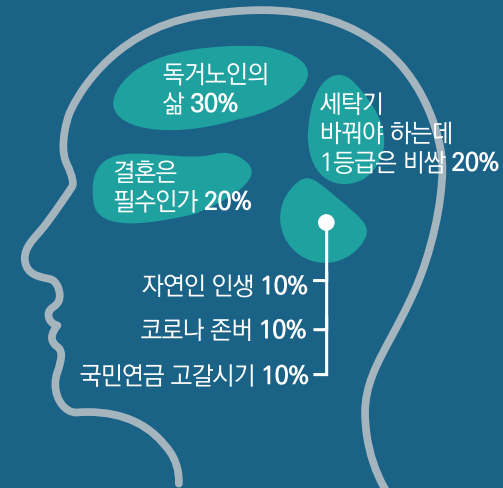
생년월일 81.07.10  
계자리 / 닭띠 / O형

시간이 지나도 생각나는 추억?  
군바리때 군바리를 차고 군바리와 바람난 여자친구  
(J야, 잘살고 있나)

최근의 나를 어이 상실하게 만든 것?  
구해줘 홈즈에서 우리 집 앞 빌라 꼭대기 층 12평짜리  
가 전세가 5억에 나온 걸 봤을 때

두 번째 직업이 주어진다면?  
여행 투어 상품 기획 및 가이드

요즘 나의 뇌구조



나의 소확행?  
은하수 맨눈으로 보기

나 이거까지 안다! 내가 아는 신조어는?  
룸곡웁늪 (폭풍늪)

가장 싫어하는 인간 (유형)?  
더블스탠다드, 내로남불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  
아름다운 곳에서 차안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며 운전할 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나요?  
2016년 미국서부 캠핑가 일주중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할로윈파티할 때

추천해 주고픈 곳?  
그랜드캐년 캠핑장  
단체관광으로 하루 당일치기로 걸핍기식으로  
구경하지 말고 6달 전에 예약해서 꼭 풀사이즈  
RV 렌트해서 트레일러 빌리지에서 주무시고 오세요.  
순록이 여러분의 아침을 맞이해줄 겁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와 명대사는?  
눈 먼자들의 도시,  
“이곳에서 눈뜬자들은 원래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야”

원익의 핵심가치 중 “자유-열린생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회사를 또 하나의 집으로 생각하기



\*\*\*  
**홍광식**  
 洪光植  
 좋은빛을 널리 심는 사람

---

원익홀딩스 시스템사업본부  
 제조팀 생산P 과장 홍광식

생년월일 82.10.25  
 전갈자리 / 개띠 / B형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되는 일과 잘한 일?  
 살면서 잘한 일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하는 삼 남매를 낳은 건 정말 잘한 거 같습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노하우?  
**프로축구 직관**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오랜 팬입니다. 축구장에 가서 목청껏 응원하고 소리 지르는 2시간 동안 일주일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무관중경기를 해서 갈 수 없어 집관하면서 소리 지르다가 등짝스매싱을 맞기도 합니다. ㅎㅎ

최근에 크게 웃은 기억?  
 며칠 전 큰아들이 가고 싶었던 중학교 축구팀에서 진학이 확정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차에서 울다 웃다 했습니다~ 힘들게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각나는 추억?  
**대학시절 동아리 활동**  
 음악 만드는 동아리였는데 노래 만들어 공연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대학 4년간의 추억이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는?  
**아이들과 유럽 축구여행가기**  
 유럽 명문 팀들의 경기를 직관하고 큰아들이 좋아하는 데헤아 골키퍼 만나서 싸인 받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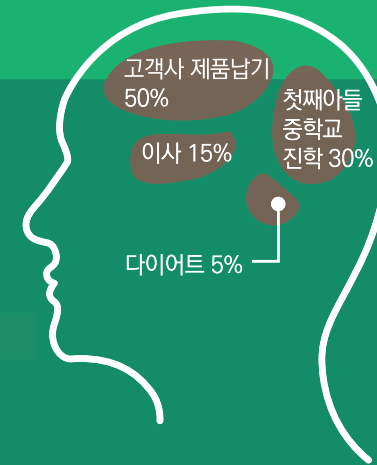
이게 행복이구나~ 느낀 순간?  
 야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삼 남매가 편안히 자는 모습을 볼 때 세상 무엇보다도 부럽지 않습니다.

최근의 나를 어이 상실하게 만든 것?  
**막내딸의 한마디**  
 저녁에 밥 먹고 들어간다고 하니 “아빠~술 먹고 오면 문 안 열어 줄거야~아니면 지구 켈리 사 오면 한번 봐줄게.” 점점 여우가 되어가는 공주님이네요. ㅎㅎ

두 번째 직업이 주어진다면?  
**영화감독**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영화감독이 되어 원 없이 영화도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 여러 사람과 공감하고 싶습니다.

나의 소확행?  
 쉬는날 삼남매와 카트라이더 한판~ 넷에서 웃고 떠들며 게임을 하다가 결국엔 막내가 울고 끝나죠. 울면 달려려고 집 앞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오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행복입니다.

요즘 나의 뇌구조



나 이거까지 안다! 내가 아는 신조어는?  
 머리가 텅빈 것 같습니다~아는 단어가 없네요~ 이제 저도 아재가 되어가나 봅니다 ㅎㅎ

가장 싫어하는 인간 (유형)?  
 뻔뻔질질하고 자기이익만 생각하며 남에게 피해주는 이기적인 사람, 예의없는 사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혼자 심야영화를 보고 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 집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나요?  
 삼남매 태어나던 날~ 아끼때 삼남매가 가끔 보고 싶어요.

추천해 주고픈 곳?  
 동탄호수공원\_요즘 쉬는날이면 삼남매 손잡고 호수공원 한바퀴 돌고 킥보드도 타고 시원한 음료수 한잔하면 코로나시대 최고의 지상낙원입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는?  
 8월의 크리스마스  
 고1때 봤던 영화인데 잔잔한 감동이 너무 좋아 지금도 가끔씩 보고 또 보는 영화입니다. 어린시절 나도 저런 영화를 만들어야지 하는 영화감독의 꿈을 꾸게 해주었던 영화이기도 하구요.

원익의 핵심가치 중 “자유-열린생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성원의 의견을 열린 생각으로 청취하고 이해하고 상대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유롭게 소통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자유-열린생각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저희 제조팀 선배들에게 배운 대로 선후배 소통의 중간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익이 주목한 세계, 마지막 주인공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종합물류기업 (DHL Express)다. DHL은 전 세계 220개국에 단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최대 물류회사로, 긴급 서류와 물품을 '도어-투-도어'로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하는 것을 최대 원칙으로 삼는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를 맞이하면서 '초연결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DHL은 50주년을 기념하기가 무섭게 다음 세대를 향한 혁신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다. 특히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비대면 시스템의 확산 등 디지털화의 가속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DHL이 내다보는 물류산업의 비전과 솔루션은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원익이 주목한 세계  
|  
키워드로 읽는  
글로벌 기업의 핵심 역량

## '초연결 시대'에서 보안과 안전의 길을 새로 열다



PART 1. 식품 - 배송  
좋은 식품이 행복한 생활을 만든다

PART 2. 엔터테인먼트 I - 넷플릭스  
방송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다

PART 3. 엔터테인먼트 II - 유틸리티즈  
기업이 된 애니메이션 창작 집단

PART 4. 물류 - DHL  
운송서비스,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다

### 100년 기업으로 이끄는 DHL의 책임

1969년부터 시작된 DHL의 역사는 줄곧 도전과 열정을 무기로 성장해나갔다. 초창기 DHL은 야간 서비스를 도입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우편 운송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70년대에는 당시로써는 드물었던 5.6리터 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진행했다. 이 시기에 DHL은 2개월마다 새로운 나라로 서비스를 확장했으며, 8일마다 새로운 도시에서 배송을 시작했다. 적극적인 투자와 책임감 있는 서비스는 오늘날 연간 550만개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만든 발판이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시장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흐름이 대두되는 오늘날, DHL은 세계 최고의 물류회사답게 일찍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명감을 스스로 부여했다. 세계 무역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규모와 중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DHL은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으로 '실천하는 책임(Living Responsibility)'을 꼽고 있다. 탄소 중립 화물 운송, 도로 차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나오는 전기 사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온라인을 통한 주문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 빛났다. 보다 청결한 물류센터를 관리하기 위해 산업용 청소 로봇 '네오(Neo)'를 시범 운영하면서 바이러스 차단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DHL의 모든 물류 창고와 허브, 터미널에는 앞으로 수백 대의 네오 로봇이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DHL 글로벌 혁신 및 상업 개발 담당 수석 부사장인 매티어스 휴트거는 "전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신속한 소독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과 물품의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가치 창출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람 중심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DHL이 준비 중인 미래의 물류

- 언택트 배송의 대안! 전기자동차와 자율 주행 5,000대의 스트리트스쿠터와 전기배송차를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전한 경로 계획과 주변 환경 파악으로 효율적인 배송이 가능해졌으며, 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를 줄이는 효과도 덩어로 따라오고 있다.
- 사물 인터넷(IoT) 및 드론 배송 DHL은 트럭에 Io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러킹'을 선보이고 있다. 물류 인프라가 취약한 곳에서도 최적의 경로로 빠른 배송을 가능케 한다. 배송 물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에서부터 제품의 모니터링까지 빠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장거리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성시대! 증강 현실 및 로봇공학 증강현실 기술 기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물류창고 업무에 활용한 비전 피킹(스마트 안경) 기술 도입. 이를 통해 업무 중 두 손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생산성과 업무 정확도가 상승하였다.



### DHL을 비상하게 하는 기업문화

키워드 (Keyword) & 결과 (Results)



**1 열린 소통과 다양한 직원 구성원**  
 DHL은 연례 직원 의견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든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이 행복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여성 직원 관리직 비율이 31%에 달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DHL 우먼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나눔과 배움, 멘토 채널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고.

**2 책임감 있는 삶 기여**  
 직원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서 기회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게 한다. 재난대응팀 파견, 교육봉사 및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직원들이 보다 넓은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미션(Go Green, Go Help, Go Teach)을 진행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3 경력 진행 및 개발**  
 DHL에서는 다양한 진로를 펼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실무급 영업 관리자로 시작하여 지역 본사의 영업 & 마케팅 부사장이 되거나, 인사부 인턴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사업부의 지역 인사총괄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전 사업부에서는 부서별 리더십 프로그램 및 직능별 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아울러 보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수준의 포상을 제공하고 있다. **WONIK**



IMPROVING LIVES.





업무 외 개인적인 고민 상담도 할 수 있는 친한 언니 같은 선배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공대를 졸업한 품질팀 여성 엔지니어가 회사에 거의 없기 때문에 서로 진로에 관해 함께 공감하며 고민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 MENTO

원익머트리얼즈  
품질보증팀

## 여주인

안녕하세요.

원익머트리얼즈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주은입니다. 2017년 공채 3기로 입사해서 오창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벌써 4년 차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신입사원과 멘토링을 하고 있네요 (웃음).

원익머트리얼즈 품질보증팀에서는 크게 고객대응 업무, 시스템 관련 업무, 협력사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고객대응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로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신규 제품 품질 관리, PCN 제안, 고객 QSA/QPA 대응, 고객 접수 품질 이슈 대응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국내 SEC, SK하이닉스, SDC, 해외 SCS, Intel 등이 있고요. 고객 요청사항에 대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원료부터 고객사 납품 전까지의 전반적인 처리 과정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부서와 협업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영님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품질팀 OJT에서 똑 같은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지영님의 눈이 반짝반짝해서 엄청 인상 깊었어요. 꼭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영님 또한 적극적으로 품질보증팀을 희망한다고 해서 무척 기뻐요. (웃음).

어떤 도움을 주고 받고 싶나요.

회사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업무 외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회사 사람을 만나는 게 절대 쉽지않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팀 선배를 넘어서,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영님과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요. 또한, 함께 바라보고 걸어가는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조언과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후배지만 배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영님은 항상 밝고 모든 일에 의욕적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현실에 안주한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자극도 더해집니다. 지영님을 통해 회사 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요즘 즐기는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골프를 배우고 있어요. 퇴근 후 운동을 하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배울 계획입니다. 다음엔 지영님과 요가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반도체 공정에 관해 공부할 계획입니다. 납품하는 소재가 어떤 공정에 사용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워, 고객 문의사항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만의 노하우를 다지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지영님과 함께 반도체 관련 교육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나요.

다른 부서와 비교해도 품질보증팀은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합니다. 회사생활이라는 게, 기대했던 바와 다를 수 있는데 지영님이 우리 팀에 잘 적응해줘서 정말 고맙고 부듯합니다. 그리고 원익의 핵심 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팀장님, 우리 팀원님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

내가 따로 도와줄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고, 지영님 덕분에 우리 팀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아. 고민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7월에도 예쁘게 네일 받고, 맥주 한잔하자(웃음).

당신의 회사  
선택 기준이 자유,  
소통, 행복이라면  
원익머트리얼즈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공채 6기로 입사한, 품질보증팀의 권지영 사원입니다. 최근의 제 관심사는 운동이에요. 평소에도 체력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입사 전부터 요가를 했는데, 잠깐 휴식기를 갖다가 요즘 다시 시작하고 있답니다.

현재 품질보증팀에서 시스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스템 업무란, 사내/사외에서 발생하는 이상 발생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이상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타부서와 협력하여 원인 발굴 및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아울러 공장 내 공정, 설비 등을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내 통합 문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각각의 부서마다 필요한 절차서나 지침서 등의 문서를 표준화하고, 이러한 문서들이 현장에서 행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배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품질본부 내에서 제가 속할 팀이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품질본부에서 진행되는 OJT를 들으며 각 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파악해 나가는 때였죠. 이때 보증팀의 업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 외적으로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소개해주신 업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네요(웃음).

업무의 매력은 어떤점이 있나요.

품질보증 업무가 매력적인 이유는 회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상 발생 업무의 경우, 다양한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 출하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답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타부서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선배와의 업무에서는 CS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고객사로부터 문의사항이 접수될 경우, 해당 내용이 저희 시스템 업무로 넘어오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즉시 조치 방법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CS를 통해 고객사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최근에도 실린더 밸브(Cylinder Valve) 오염과 관련된 접수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고객사에 전달되었고요.

선배에게 배우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제게 주은님은 첫 직장에서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사실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상사분을 만나게 될지 걱정이 매우 컸는데요. 제가 만나게 된 주은님은 이러한 걱정을 모두 날려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따름이죠.

가장 배우고 싶은 점은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주은님은 품질보증팀을 이끌면서도 제품의 입고부터 출하까지 모든 공정을 스테디하고 계시거든요. 언제나 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저도 닦고 싶습니다. 한 번은, 이상 발생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에 국한되어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주은님처럼 다양한 공정에 대한 지식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답니다.

어떤 후배가 되고 싶나요.

현재는 아직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이상 발생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맡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아직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능숙하게 일을 맡고 맡기실 수 있도록 배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내의 이상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_\_\_\_\_ **WONIK**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MENTALITY

원익머트리얼즈  
품질보증팀

권지영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새로운 시각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맡기신 일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 내 마음이 몰어버릴 것 같은 때 있으신가요?

원익은 임직원의 소중한 마음건강을 위해서  
심리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나의 마음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 프로그램 지원은 각 사 다를 수 있습니다.

선배 근로자들은 신입 근로자들이 아마추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신입 근로자들의 태도가 우습게 보여도 그들 역시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것이다. 신입 근로자들이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일에 임할 때 선배 근로자들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오늘도 모든 일이 서투른 신입

●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본인의 동의 없이 알려지지 않으며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보장 됩니다.

글. 어그맘 허그인 심리상담센터 부원장 이상

## 자아팽창감

첫 직장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이 된다. 이 때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CEO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을 맡아도 잘 해낼 것 같은 그런 기분에 휩싸이기 쉽다.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고 기업에 입사를 한 자체가 인생의 큰 관문을 통과한 것이 맞기는 하나, 아직 시작일 뿐이고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즉 입문자로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가 중요하다. 가벼운 조언을 쉽게 무시하면서 내가 뭔가 깨달았고 성취했고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를 자아팽창감이라고 한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한 상태가 아닌데 원래보다 심하게 부풀려져 있어서 땡 하고 터지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신입사원에게는 아는 척하지 않으면서 배우려고 하는 신입사원다운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회사 또한 신입사원에게는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는다. 무엇을 믿고 신입사원에게 큰 일을 처리하도록 맡기겠는가. 간혹 입사한지 얼마 안 되어 현장에 투입되어 전문가적인 면모를 보여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누가 더 융통성을 발휘하며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지금까지 보아온 작은 정보들을 통합시키고 응용할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능력에 대한 인정이 판가름 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초심자는 좀처럼 없기에 상사 혹은 사수에게 물어가며 짚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야단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 check

- 나는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가?
- 내가 회사에 기대하는 인간관계가 과도하게 수용적이고 따뜻하고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것은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아닐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당한가?
- 상대방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인가, 추측인가?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추측이라면 내가 또 추측을 하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어디서 누수가 발생하기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만약 그것을 알게 된다면 고칠 의지가 있는가?
- 취업 후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죄도 아니다. 어쩌면 커피 심부름, 인쇄 심부름을 하는 것이 나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일을 계속 하게 된다면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는 없는 건가? 일에 집중할 수는 없는 건가?
- 내가 동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대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약자지컬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들끼리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애인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그 문제를 성찰하고 더욱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심리학자 용은 다른 사람들은 팬찮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왠지 모르게 싫은 사람, 대하기 껄끄럽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그림자 이론으로 이를 설명한다. 그림자란 내가 가지고

것이다. 따뜻한 사수를 만나는 것도 때로는 행운이지만, 실수가 좀처럼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거나 꼼꼼하게 잘 배워야 할 때는 호랑이 선배, 훈장님 같은 상사를 만나는 것이 일을 잘 배우는 것에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 대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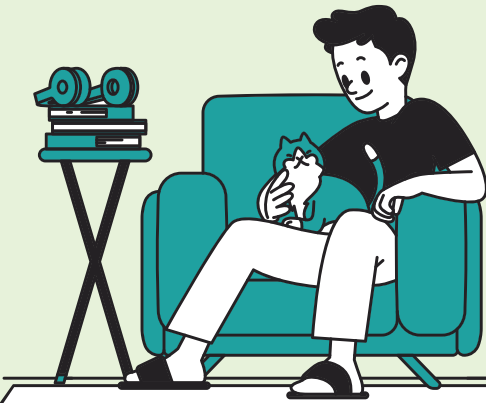
회사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은 사실 대인관계이다. 대부분 큰 결정은 직원들이 하지 않기에 일은 어찌 보면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대부분 관계적인 때가 많다.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혹은 상사가 너무 싫다)', '동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취업 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커피 심부름만 시킨다. 이렇게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데 술자리에 끼인 사람들만 항상 함께 모이는 것 같다.', '내가 동기 모임에 안가면 분위기가 조용하다. 내가 가서 분위기를 띄우고 뭔가 해야 할 것만 같다' 등은 기업 내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상담에서는 단골 주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대개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럴까?',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은 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만약 위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기 어렵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일컫는다.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증폭되어 상대방을 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의식화되어야 하며 자신의 인격에 비로소 통합되어야 인격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내가 버릴 수 없는 나의 모습이다. **WONIK**

# 비대면으로 살아보기 START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라이프가 장기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일명 '집콕'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집콕'라이프의 하루 일과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_\_\_\_\_ **WONIK**



AM  
10:00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해진 마음을 문화생활로 달래줍니다. 박물관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집에서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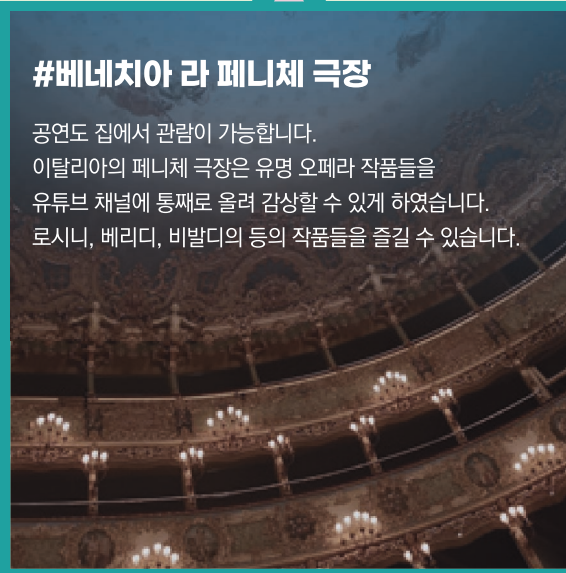
## #그 밖에 온라인으로 즐기는 문화생활 LIST

**MUSEUM**  
네덜란드 국립박물관 (Rijksmuseum)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국립현대 미술관

**CONCERT**  
미국 메트로 폴리탄 나이틀리 및 오페라 스트림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디지털 콘서트 홀  
브로드웨이 월드, 리빙 룸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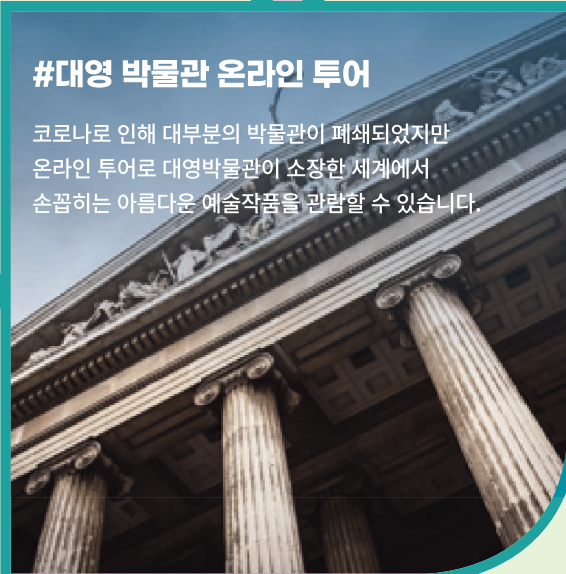
##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공연도 집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탈리아의 페니체 극장은 유명 오페라 작품들을 유튜브 채널에 통째로 올려 감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로시니, 베리디, 비발디의 등의 작품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 #대영 박물관 온라인 투어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박물관이 폐쇄되었지만 온라인 투어로 대영박물관이 소장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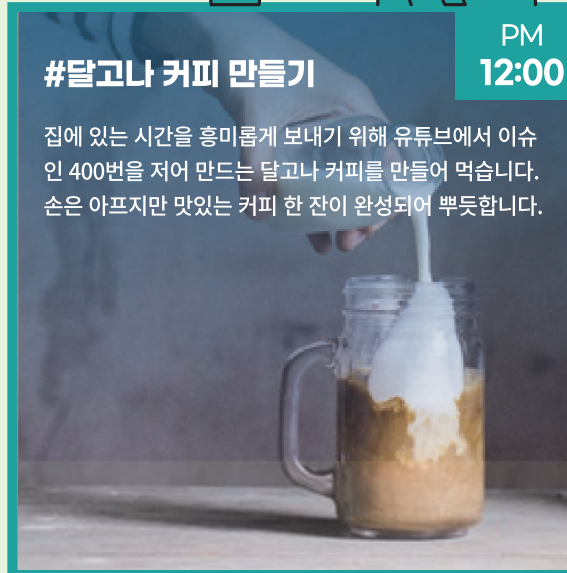
이제 문화생활로 우울해진 마음을 충족 시켰으니 다음 일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PM  
12:00

## #달고나 커피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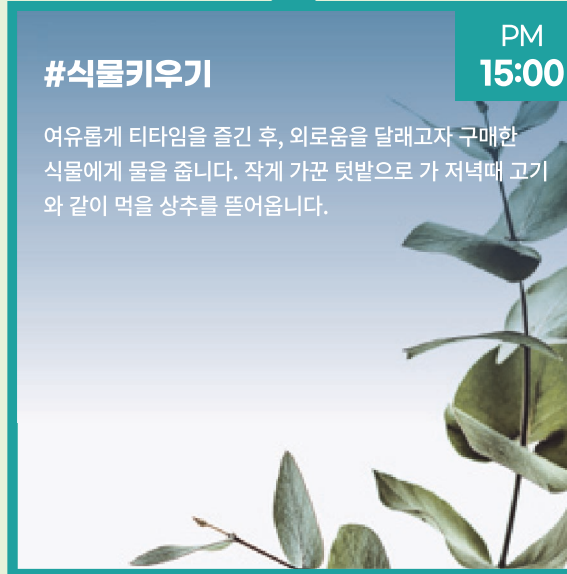
집에 있는 시간을 흥미롭게 보내기 위해 유튜브에서 이슈인 400번을 저어 만드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먹습니다. 손은 아프지만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완성되어 뿌듯합니다.



PM  
15:00

## #식물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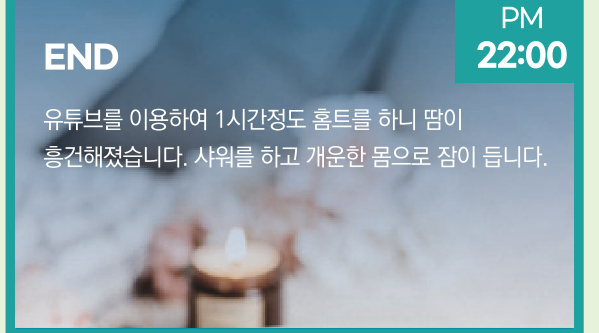
여유롭게 티타임을 즐긴 후, 외로움을 달래고자 구매한 식물에게 물을 줍니다. 작게 가꾼 텃밭으로 가 저녁때 고기와 같이 먹을 상추를 뜯어웁니다.



PM  
22:00

## END

유튜브를 이용하여 1시간정도 홈트를 하니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개운한 몸으로 잠이 듭니다.



유튜브에는 이미 홈트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 되어 쉽게 운동 동작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기록부터 시를 이용한 자세 체크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는 홈트 어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PM  
20:00

## #홈트

저녁 식사 후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헬스장에 가려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잠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집에서 즐기는 헬스, 일명 '홈트'를 합니다.



Theme. ....

# 자유 - 열린 생각

스  
스  
로  
상  
/  
상  
/

section II.  
등등, 생각을 여는 노크



'등실등실', '등등'  
이런 단어를 만나거나 소리 내어 읽어 보면  
내 마음도 가볍게 뜨거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발음할 때의 입 모양도 한순간에 둥그랗게 부풀고,  
귀로 들리는 말소리도 어쩐지 푹신푹신히 느껴지죠.

무언가를 자유롭게 상상할 때 우리의 마음도 꼭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이면 좋을 텐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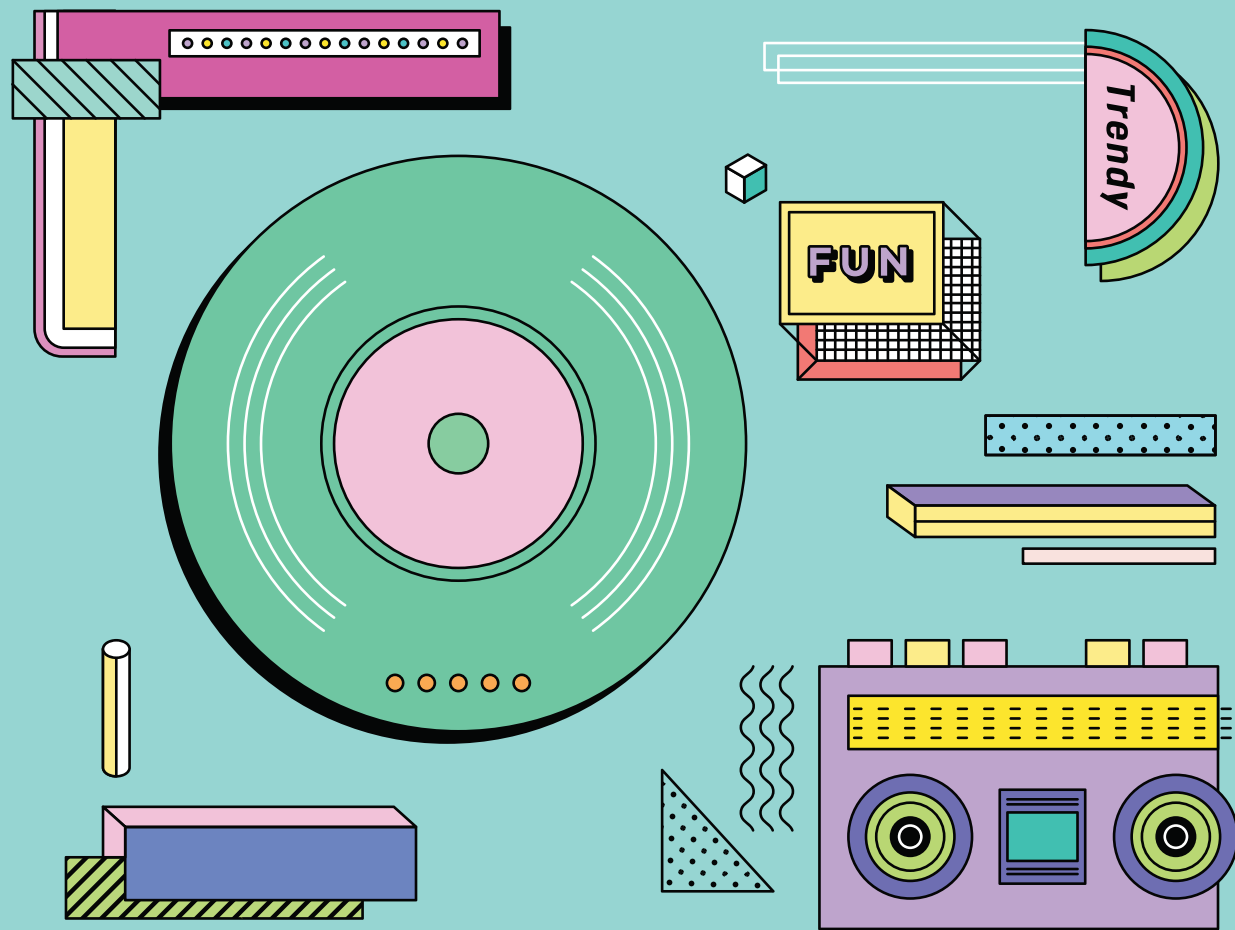


흔히들 유연한 생각, 열린 생각을 하라고 주문합니다.  
조급해진 마음은 손가락 마디를 뽀족하게 세워  
딱딱하게 노크하기 바쁘네요.

단단한 공처럼 고집스레 웅크리고 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 노크라면

등실등실, 등등

이런 모습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풍선이 부풀 듯 천천히, 아이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이예요.





## 모두를 만족시킨 'CS 전진기지'

### 원익 IPS 이천SITE 오픈식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면 서도 고객 요구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거점이 필 수적이다. 원익아이피에스는 이번 이천사무소 개소로 이를 실현했 고, 그 안에 CS전문교육장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내실을 한층 강화 했다. 내부 고객인 직원과 외부 고객인 SK하이닉스를 모두 만족시 키는 'CS 전진기지'가 탄생한 것이다.



# WONIK IPS

### 완벽하게 환골탈태한 이천사무소

지난 5월 13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던 이천사무소 개소식 이 개최됐다. 이현덕 대표와 반도체 2본부 총괄 박성기 사장, CS 엔지니어 대표 김민철 부장과 사무실 임직원이 두루 참석한 가운 데 열린 개소식에서는 이천사무소의 설립 배경과 과정, 현황과 앞 으로의 사용 계획이 간략하게 발표됐다. 이현덕 대표는 "이천사무 소 개소와 입주를 축하드린다"라며 "이로써 우리의 주요 고객사 중 한 곳인 SK하이닉스에 더욱 밀도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개소가 내부 고객인 직원들 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 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직원들의 만족이 고객 만족과 최 상의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말로 축사를 마무리 했다. 참가자들의 커다란 호응과 박수가 이어졌다.

케이크 커팅을 마친 이현덕 대표는 이천사무소 곳곳을 직접 둘러 보며 "이천사무소가 내실 있게 꾸며졌다"는 소회를 밝혔다. 더불 어 세부적인 꾸밈새를 꼼꼼하게 가다듬고 개선·보완해야 할 점을 전달하는 데에도 시간을 쏟았다. 원익아이피에스의 이천사무소 개 소식은 이렇듯 설립과 만족감 속에서 유쾌하게 마무리됐다.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CS 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사무소가 다시 태어났다. 기존 협소하고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던 임대공간에서 벗어나, SK하이닉스가 코앞인 6,213㎡(1,879평) 부지 위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업무공간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작년 5월 첫 삽을 뜬 이천사무소는 올 2월 28일 준공됐고, 3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쾌적한 사무실과 한쪽에 카페형 회의공간이 조성됐고, 독립된 회의실과 아이디어룸은 물론 접견실·헬스장·자재창고·샤워실·수면실·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어 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다.



## 이론과 실전을 아우르는 CS전문교육장

한편 이천사무소 3층에는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CS 전문교육장이 들어섰다. 신입사원 교육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재교육 및 보강교육에도 앞장서게 되는 'CS 교육의 요람'이다. 10명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이론교육장과 7개 과정 35개 세부 아이템으로 구성된 실습교육장, 교육장 전용 사무실과 창고가 두루 마련되어 있어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실천적 CS 교육이 가능하다.

이곳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객지원3팀 최광업 부장은 "신입사원부터 과장급까지, 직책별 요구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CS 전문교육장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신입사원은 반도체 기본교육과 실습교육, 사원에서 대리급은 실습 및 제어교육, 과장급은 고장 분석역량 강화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시간도 2~5일로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은 물론 업무 만족도까지 두루 높이는 전문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최광업 부장의 굳은 각오다.



이천사무소 개소식이 한창인 와중에도 CS 전문교육장의 교육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 3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2명이 5일 일정의 신입사원 기본교육을 이수하는 중이었다. 나란히 인턴을 거친 후 정식 입사한 고객지원3팀 김진영·서순호 사원은 클린룸의 이해 및 입장 주의사항·반도체 전체 공정·담당 설비의 배치와 역할·설비 파트별 명칭 및 기능·사내 온라인 시스템 등을 두루 배웠다. 김진영 사원은 "설비에 대한 이론교육을 통해 각 파트의 역할과 정확한 대응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는 교육 소감을 전했다. 서순호 사원은 "실제 장비에 적용된 파트와 부품들을 직접 만지고 다뤄볼 수 있는 실습교육 덕분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이 이론과 실전을 넘나들며 제대로 진행됐다는 방증이다.

이제 막 첫발을 댄 이천사무소와 CS 전문교육장은 앞으로도 SK하이닉스 CS 업무 수행의 든든한 밑바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전망이다. 이곳에서의 활약이 원익아이피에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 **WONIK**



미니 인터뷰 :  
교육장 3인의 각오

**최광업 부장**

제대로 된 CS 전문교육장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많은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실 있는 CS 교육과 직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커리큘럼 구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진영 사원**

반도체 생산라인에 실전 배치되어 있어 다루기 매우 조심스러웠던 장비들을 이곳에서 직접 살펴보고 만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어서 빨리 한 사람 몫을 다하는 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순호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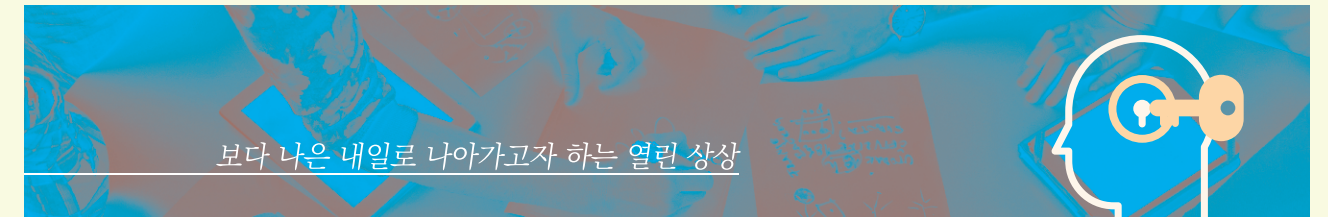
올 8월에 중국으로 파견 업무를 나가게 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여러 장비에 대해 자세하게 익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보내시는 만큼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열린 상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가다

WONIK HOLDINGS

적극적인 업무 태도와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성과를 개척하는 사우들이 있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이를 바탕으로 원익의 이름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개인적인 성장도 이루고 있는 것. 이들의 열린 상상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결실을 함께 살펴보자.



### 원익의 연구력을 세상에 알리다

원익홀딩스 기술연구소의 박규진·김유성·최상국·노운영·임예술·진세라·김성훈·이현준 연구원은 작년 10월 23일부터 사흘간 대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 3건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다.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우리나라 금속·재료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유서 깊은 학술행사로, 작년 추계학술대회에서만 940여 편에 달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원익홀딩스 기술연구소의 발표는 대회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 있었다. 첫 번째 포스터 발표인 <염소 가스 제거용 흡착제 물성 평가 및 실장 적용 평가>에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유해 가스를 제거하는 '스크러버(Scrubber)'에 사용되고 있는 염소 가스 제거용 흡착제의 물성 평가 및 흡착 성능 결과를 공개했다. 뒤이은 포스터 발표인 <3A, 13X Molecular sieve 물성에 따른 수분 흡착 성능 평가>에서는 산업용 가스 정제 시 수분 제거를 위한 흡착제 '몰레큘러 시브(Molecular sieve)' 중 3A, 13X의 물성 평가와 흡착 성능 시험 결과가 발표됐다. 마지막 포스터 발표인 <니켈촉매 물성에 따른 촉매 특성 비교 평가>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촉매제인 니켈의 촉매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원익홀딩스 기술연구소는 이를 통해 높은 연구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시험 결과를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에도 일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학술대회는 1년에 2회 개최되며, 올해는 4월과 7월에 각각 참가하였고, 지속적인 학술대회 참가와 논문 게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꾸준한 자기개발로 시야를 넓히다

그런가 하면 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공정개발1실 몰드팀 김민수 과장은 114편의 논문과 학회 발표 156건, 특히 11건 등 놀라운 연구 실적으로 개인적 성취와 회사 기술력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 올해는 논문 5편 게재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덧 3번째 작성 중이다.

김민수 과장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공정개발1실의 '개인학습' 시행이 한몫했다. 이를 통해 직원 개개인이 정해진 업무 외에 개인 학습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 김민수 과장은 이러한 여건을 심분 활용했고, 개인 학습 및 실험·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허를 출원하고 논문도 게재했다. 나아가 해당 연구 결과를 고객사 반도체 연구소에 제안해 기술적 검증도 마쳤으니, 자기개발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만약 기술연구소 연구원들과 김민수 과장이 정해진 업무와 회사의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려 했다면, 이처럼 발전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회사와 업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내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린 상상이 이들 성장의 원동력이다. 머리와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다른 무언가를 꿈꿔 보자. 그 꿈이 우리를 새로운 발전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WONIK**

& WONIK IPS



# 기술독립 이끄는 '소부장'으로 탄력받는 내일

## 으라차차 '소부장' 보고 대회

지난 7월 9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속에서도 미래 산업의 새로운 동력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간담회였다. '으라차차 소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처럼 뜻 깊은 자리에 원익아이피에스도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첨단산업을 갖춘 세계공장으로 도약할 미래를 기약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및 향후 발전 전략을 공유하면서 더욱 유의미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우리가 주인공!  
대한민국 경제가 소재, 부품, 장비산업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찾길 기대하다



"최초와 최고가 되기 위해 험한  
길을 걷는 소부장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연구개발을 많이 응원하고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현덕 대표

## 원익아이피에스의 슬기로운 경영생활

해가 거듭될수록 산업현장 안팎에서는 '소부장'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소부장 기업의 가치 역시 한층 높아졌다는 뜻이겠다. 반도체 공정 장비를 만드는 원익아이피에스는 현재 글로벌 장비 기업 대비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지만, 집중적인 R&D를 통해 세계 Top5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기업의 성장에는 연구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좋은 부품을 만들어줄 공급기업,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수요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원익아이피에스의 1년 또한 이 같은 연결고리를 보다 단단히 하는 과정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언택트 시대에서 슬기로운 경영생활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원익아이피에스. 특히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 등에 있어 모범을 보여주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또 한 번 유의미한 성장을 이뤄냈다. 우리들의 빛나는 한순간이 새로이 기록된 이 날을 발판 삼아 앞으로 도 위기에 더욱 강한 원익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앞으로도 향후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한가운데에 원익의 이름이 여름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나기를! **WONIK**



WONIK IPS

# 나에게 원익이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등대'같은 존재  
원익홀딩스 제조팀 제어P 김준식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곳이며  
저의 잠재력을 인정해준 소중한 회사  
원익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보람차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원익큐엔씨 세정사업본부 생산팀 이원주

원익은 나와 함께 성장할  
친구같은 회사입니다  
저도 원익도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익아이피에스 DCVD팀 박성민

깨어있는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가스1팀 이유정

한마음으로  
협업하는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해외영업팀 유건희

나 스스로  
성장 가능하다는 걸  
알려준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국내영업팀 김덕현

비오는 날 우산 안 챙겨서  
나왔는데 우연히 가방 속에서  
발견한 우산 같은 존재  
원익홀딩스 마케팅P 강미리



나에게 원익이란 시작과 끝이다  
원익아이피에스 DIFEUSION3팀 홍민희

어릴 적 배운 구구단과 같은 존재  
복잡한 자릿 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이 기본이듯, 원익에서의 첫 직장생활  
이 앞으로 원숙해질 직무능력과 사회생활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제조팀 설계P 이준우

## 공채 6기 사우들에게 묻다

나에게 원익은 "포춘쿠키"다  
행운을 상징하는 디저트처럼 달콤한 합격 전화로  
인연을 시작한 원익, 그 안에서의 배움은  
포춘쿠키 속 문구처럼 매일 새롭다  
원익홀딩스 개발구매팀 김소연



새로운 분야, 새로운 생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생산1팀 배상우

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  
원익아이피에스 개발2팀 김성윤

소통과 협력에 대해 배우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구매팀 김예은

엔지니어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  
원익아이피에스 ALD팀 김재경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프리커서1팀 박종범

젊은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GOC팀 조병완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되는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가스2팀 수소기획파트 지도성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품질보증팀 권지영

새로운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품질관리2팀 심혜경

자유 소통 행복을  
실천하는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전략기획팀 안종대

꿈임없이 배울 수 있는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가스2팀 김한솔

서로서로 배려하는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해외영업팀 김준우

나라는 원석을 가공하고  
때론 열정을 뜨겁게 달구는  
용광로같은 회사  
원익머트리얼즈 정보전략팀 황도현

어렸을 적 아버지가  
사주신 첫 자전거처럼  
최상은 아니지만 최고인 회사  
원익아이피에스 DCVD팀 심정훈

## 자유 - 열린생각 스스로 상상하라



HEADLINE

69

원익 사보 (원익인)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즈'  
금상 수상



70

원익아이피에스

신규 회의공간 구축  
반도체연구소 공정개발부문 조직문화 활동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원익IPS

70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계약관리시스템 설명회 진행

# NEWS FOCUS

자유 - 열린생각° 스스로 상상하라  
WONIK MAGAZINE 2020 VOL. 61 SUMMER



73

(주)원익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주)원익의 노력



74

씨엠에스랩

(주)씨엠에스랩, 대전보건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주)씨엠에스랩 임직원 축하파티



72

원익큐엔씨

사내외국어교실 PRODA 개설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선크림 후원



2020 GOLD STEVIE® WINNER

원익 사보 「원익인」이 지난 7월 15일(수) '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즈'(2020 Asia-Pacific Stevie Awards) 금상으로 다시금 트로피를 들었다.

출판부문 마케팅·영업인쇄물 혁신(Award for Innovation in Marketing or Sales Literature)의 최고상인 금상(GOLD STEVIE® WINNER)을 수상했다.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스티비어워즈는 2013년부터 아태지역 29개국의 모든 기업, 단체, 정부·공공기관의 우수한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조직과 성과에 대해 부문별로 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아태 스티비어워즈는 '혁신(Innovation)'을 키워드로 선정하여 1,200여 출판물 중 지난 2년간의 조직 운영 실적 전반에 대한 혁신성을 중점으로 심사하였다.

올해 시상식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9월 22일(화) 14:00(KST) 진행됐다. 원익은 작년 '2019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 <기획대상>, <사내보 대상> 2관왕에 이어 올해 '2020 아시아-태평양스티비어워즈'에서 <금상>을 수여 받아 「원익인」으로 두번째 수상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원익인」은 원익의 11개 계열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 채널로 기획되었다. 원익의 비전과 기업문화를 명확히 전달하는 창구로서 가치 있는 이야기와 정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익의 핵심가치 '자유, 소통, 행복'을 주제로 가치 정립과 전파를 위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임직원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데 힘써 왔다. 앞으로도 원익의 자유, 소통, 행복을 위한 사보를 제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스티브 어워즈 마이클 갤러히 회장은 "수상보다 수상 이후 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익인」의 기획·디자인·제작을 담당하는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의 유정희 팀장은 "원익의 핵심가치 실현과 더불어 기업문화의 수평적 확산으로 원익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끝으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 '비즈니스계 오스카상' Stevie Awards 원익, 왕관을 쓰다

원익 사보 「원익인」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즈' 금상 수상

스티비 어워즈  
국제 비즈니스 대상, 아태 스티비어워즈를 포함 8개 시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1만여 개 이상의 출판물 중 뛰어난 성과를 보인 사람과 조직을 선정하는 국제적 시상식

Headline

## 원익홀딩스

01



### 원익홀딩스 계약관리시스템 설명회 진행

원익홀딩스가 준법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계약관리시스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20년 6월 18일(목) 1, 2차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는 부서별로 팀장/파트장/부서별 계약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하여 신규로 도입되는 계약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계약관리시스템은 기존에 진행하던 수기 계약관리를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계약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계약 내역 및 히스토리 관리), 거래 관련 내부통제 및 잠재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ERP)에 계약 관리 항목을 별도로 구축하여 이질감을 최소화하였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계약을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계약 당사자 간 준법윤리경영 실천 및 상생협력 강화를 도모하여 올바른 계약관리 프로세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본 설명회를 진행한 컴플라이언스 파트 정현호 과장은 “임직원들의 높은 참여 의지에 감동하였으며, 본 시스템이 준법경영 강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고 담당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 원익아이피에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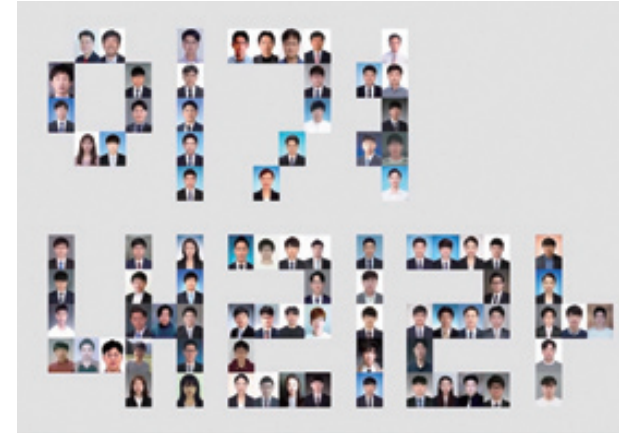
### 신규 회의공간 구축

원익아이피에스 본사 8층에 새로운 회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기존에 각 층에 있던 회의실들을 쾌적한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폐쇄하고, 8층에 전문 회의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신규 회의실들은 기존의 획일적인 인테리어에서 벗어나 다양한 Concept를 적용하여 원익의 핵심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이 더욱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회의 구역은 크게 A 구역과 B 구역으로 나뉘는데 A 구역은 세계 각국 도시 컨셉으로 구성되었다. New York, London, Athenae, Paris, Roma, Sydney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이국적인 풍경을 회의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B 구역은 스포츠 컨셉이 적용되어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 온 듯 한 독특한 인테리어의 회의실이 마련되었다.

그 외에도 스탠딩 회의실, 화상회의 전용 회의실, 의자 대신 빈백이 놓여 있는 회의실, 도형 컨셉의 회의실 등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회의실들이 갖춰져서 직원들이 목적에 맞는 회의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처럼 다채롭게 새 단장을 마친 원익아이피에스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소통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02



### 반도체연구소 공정개발부문 조직문화 활동

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공정개발부문은 Global No.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체적인 조직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조직문화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조직구성원들의 목표 확립, 사기 진작, 문화 개선을 위해 매월 서면으로 진행 상황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우선 상시 진행되고 있는 조직문화 활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조직문화 사원증 Tag 상시 소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원익의 핵심가치 자유, 소통, 행복을 기반으로 공정개발 부문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세부 가치들을 작성하여 항상 소지함으로써 내재화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소통이라는 가치 아래에는 ‘고객 중심의 사고: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과 품질을 제공, 내부 고객과의 바른 소통도 경쟁력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와 같은 가치들을 훌륭히 실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상/하반기 별 자유, 소통, 행복 상을 수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추진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공정개발 엔지니어라고 하여 프로젝트 수행 시 공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설비 엔지니어와의 협력 및 상호 배움을 통해 차별화된 공정 Concept를 기구로 구현할 수 있는 System Engineer(장비장이)가 되자는 의미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메일 등을 통해 공유하여 설비 Engineer와 One Team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이사  
이현덕 대표이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Global No.1 이라는 목표를 잊지않는 연구소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개발 부문장  
전찬성 전문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늘 이겨냈고, 이번에도 함께 이겨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공정개발부문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 1회 공정개발부문장과 직급별 소통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임원-직원 간 허물없이 진솔한 소통을 하기 위한 자리로 매주 동일 직급자 6~7명씩 조를 편성하여 소규모 오프라인 미팅을 갖는 형식이다. 이 자리를 통해 업무 환경 변화에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 공정개발 부문 내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공정개발부문 전체 인원 235명이 모습과 대표이사, 부문장의 격려 말을 담아 영상으로 제작하며 배포하였다. 환경안전팀에서 제시하는 행동강령을 잘 시행하는 모습, 코로나 19 이전 공정개발부문의 활동 기록, 멘토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공채 6기들의 아쉬움, 이겨낼 수 있다는 연구들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들로 제작된 영상으로, 코로나 19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담아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응원의 메시지가 공정개발 연구원들에게 힘이 되어 Global No.1 핵심 공정 기술 확보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원익아이피에스**

원익아이피에스는 환경안전팀을 필두로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COVID-19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출입관리 활동으로 전 사업장 출입구에서 열화상 체온 측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면역력 약자인 기저 질환자를 사전 조사하여 재택근무로 전환하였으며, 사업장 출입제한 세부 기준을 수시로 변경 적용함에 따라 고위험시설 방문자 외 감기 등 유증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daily로 진행하고 있다.

방역관리 활동으로는 사업장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공동 사용 시설(화장실, 회의실, E/V 등)은 1일 2회씩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택근무자 발생 시 해당 인원 자리 소독도 하고 있다. 더불어 임직원들 모두가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방 수칙을 방송으로 1일 3회, 문자로 1일 1회 안내하고 있다.

개인 PC 화면보호기에도 14대 행동 요령이 의무 설정되도록 조치하였다. 물품지원 활동으로는 중국 거점 인원 대상으로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는 회사에서 단체 구매하여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급을 하기도 하였다. 그 외 사내 회의 축소, 집체 교육 연기, 부서 회식 및 개인 모임 금지, 한시적 도시락 운영, 휴게실 폐쇄 등 COVID-19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이 진행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금까지 원익아이피에스에는 COVID-19 확진자가 전체 임직원 1,500명 중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어 전 직원이 마스크를 벗고 웃으며 소통할 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해 본다.

**원익큐엔씨**



**사내외국어교실 PRODA 개설**

원익큐엔씨는 구성원의 효과적인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하여 사내 외국어 교실 ‘PRODA’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와 고객사들이 많은 원익큐엔씨는 글로벌 역량에 대한 수요가 항상 존재해왔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외국어 교육 시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아침에 사내 강의실에서 영어, 중국어 교육을 그룹으로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았으나 시/공간적 제약과 수준별 학습이 불가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1:1 맞춤 강의 프로그램인 ‘PRODA’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내에 외국어 강사를 상주시켜 20분간 수업을 진행하며, 오전 시간대에는 한국어 강사, 오후 시간대에는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수강생의 수준에 맞추어 원하는 강사를 선택할 수 있다.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짧게 교육을 진행하고, 과제를 부여하여 복습 및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회화뿐 아니라 이문화 특강도 계획하는 등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글로벌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대면 교육이 아닌 화상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개인별 맞춤 교육과 시간 선택이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에 직원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중국어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우리 임직원들의 학구열을 응원하며, PRODA를 통하여 Global Company 원익큐엔씨 임직원들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썬크림 후원**

원익큐엔씨는 지난 5월28일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씨엠에스랩 썬크림 100세트를 기부했다. 원익큐엔씨와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6년부터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물품을 후원하게 되었다. 후원 물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 종사자들과 지역사회에 취업 중인 장애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물품 전달을 위해 방문한 원익큐엔씨 도현수 상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상생활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장애인이나 종사자 모두 건강하게 이겨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여름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으며,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숙희 관장은 “원익큐엔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취업 알선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원익큐엔씨와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채용, 장애인 야외 활동 지원, 명절 음식 전달, 바자회 후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해오고 있다.

**(주)원익**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주)원익의 노력**

2020년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원익도 임직원 또는 가족, 그리고 공동체 모두를 위해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사업장 내에서는 매일 출입하는 임직원의 체온을 체크 관리하고 외부인 출입은 최소화하며, 매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제공하여 사무실 외부를 나갈 때 항상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SnH사업부는 주력사업을 통해서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주력제품 중 압력센서 등이 코로나 19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귀체온계, 호흡기 제품 등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주)원익에서 생산된 제품이 세계 각국의 코로나 19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햄버거, 명랑핫도그, 대만샌드위치 등 매주 새로운 간식과 아이스크림을 제공하여 임직원의 누적된 피로를 덜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하나의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주요 거래처를 위해서도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있다.

(주)원익은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 19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씨엠에스랩

01



(주)씨엠에스랩, 대전보건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 인력·정보·기술 교류 통해 미래 인재 양성

효능 더마 브랜드 ‘셀퓨전씨’를 운영 중인 메디컬 더마 컴퍼니 (주)씨엠에스랩 (대표: 이진수)이 대전보건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고도 기술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산학협력 협약을 통해 씨엠에스랩은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대전보건대학교 뷰티미용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제품 개발에 참고할 계획이다. 제품 출시 전 품평을 통해 소비자이자 미래 관련 직종 종사자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제품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씨엠에스랩 내부 인사를 산학협력 위원으로 위촉해 양질의 뷰티 산업 인재 교육 과정 개발에 힘쓰는 한편, 양 기관이 개최하는 세미나, 연구발표회 및 전문가 초청 강연 등에는 양 기관이 상호 참여해 활발한 정보 교류를 하기로 약속했다.

씨엠에스랩 관계자는 “대전보건대학교는 뷰티케어 학과를 통해 피부 미용 전문가를 양성 중인 만큼, 인력·정보·기술 교류를 통해 양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산학협력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미래형 인재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씨엠에스랩은 병의원 채널을 기반으로 한 메디컬 더마 컴퍼니로, 더마 코스메틱 시장을 이끌어온 1세대 대표 더마 브랜드 셀퓨전씨와 쉽고 재미있는 액티브 더마 솔루션 브랜드 스위스킨을 통해 국내외 더마 시장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02



(주)씨엠에스랩 임직원 축하파티

씨엠에스랩에서 임직원들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두 번의 깜짝 파티가 열렸다. 5월에는 최동순 과장님의 결혼을 축하하는 파티, 6월에는 김진옥 과장님의 결혼과 장승일 과장님의 출산을 축하하는 파티였다.

코로나로 인해 전사 행사들이 다 취소된 상황에서 직원분들을 어떻게 축하해드릴 수 있을지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행사를 기획했다. 그러다 건물 3층에 비어있는 공간을 잠깐 빌려서 파티의 컨셉에 맞게 꾸미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파티 시작 10분 전, 임직원들이 모여서 설레는 마음으로 파티의 주인공을 기다렸다.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 보였다. 파티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자 모두가 함께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부장님들이 덕담을 해주시는 시간도 가졌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결혼하기로 선택했다면, 다른 생각 하지 말고 행복할 생각만 해라.” 라는 덕담을 들으며 함께 웃기도 했다.

지금처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위로하며 더욱 하나가 되는 씨엠에스랩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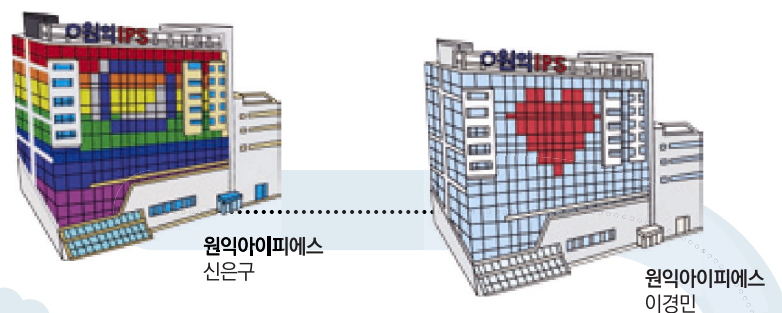
# 스킨케어 성분을 그대로! 저자극 밀착보호 레이저 썬스크린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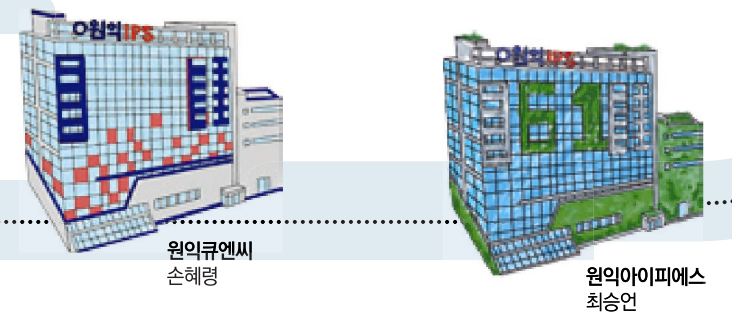
### 표지 컬러링 이벤트

지난 60호 <원익인> 컬러링 이벤트 당선작을 공개합니다. 원익아이피에스 사옥이 알록달록 색다른 옷을 입었네요. 나만의 색을 입혀 컬러링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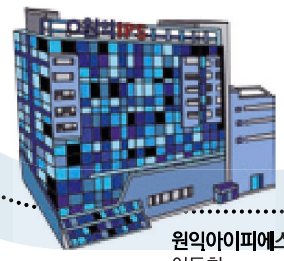
원익아이피에스  
신은구

원익아이피에스  
이경민



원익큐엔씨  
손혜령

원익아이피에스  
최승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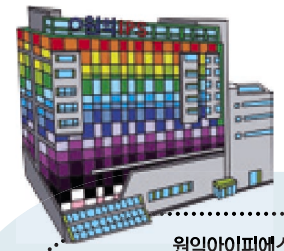
원익아이피에스  
이동희



씨엠에스랩  
박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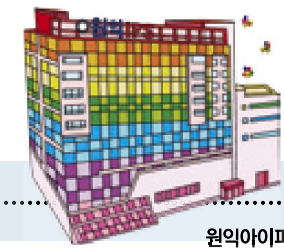
원익아이피에스  
최한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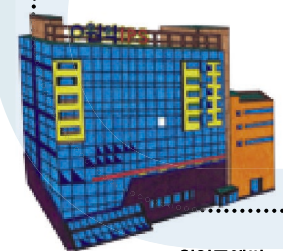
원익아이피에스  
김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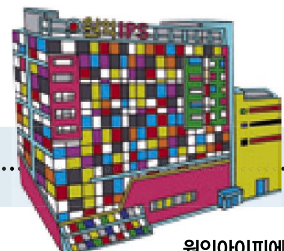
원익아이피에스  
김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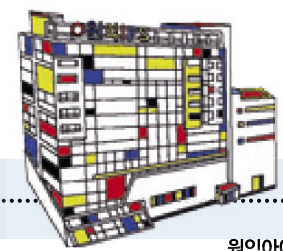
원익아이피에스  
김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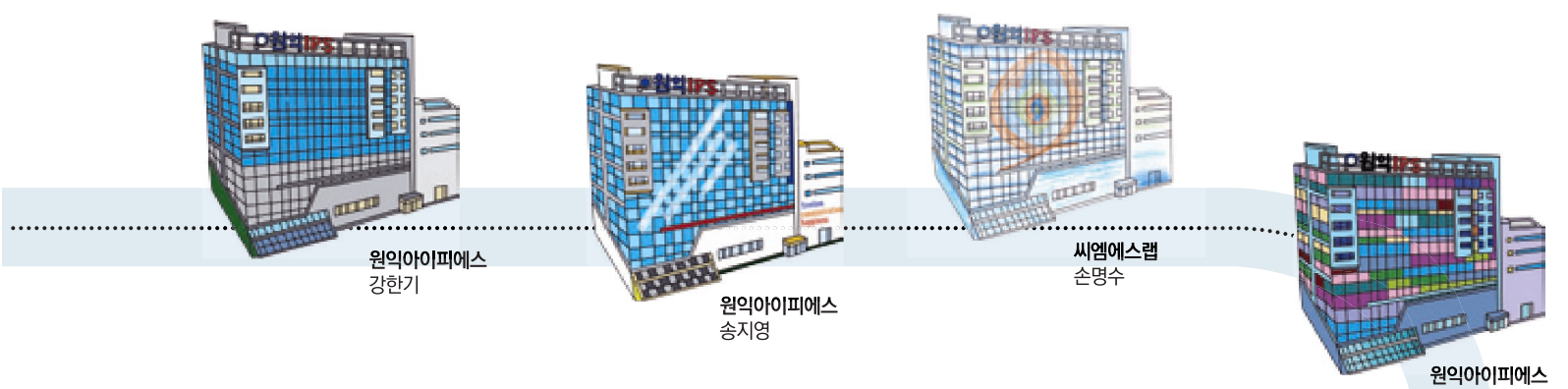
원익큐엔씨  
이주희



원익아이피에스  
최희수



원익아이피에스  
신재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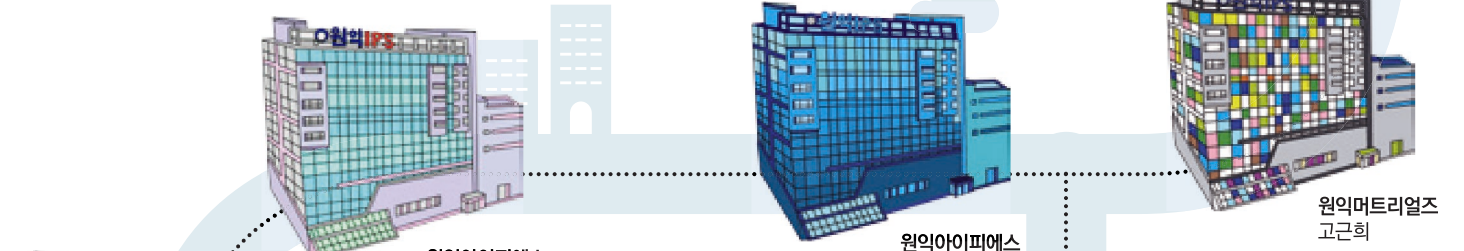


원익아이피에스  
강한기

원익아이피에스  
송지영

씨엠에스랩  
손명수

원익아이피에스  
이윤형



원익아이피에스  
신예진

원익아이피에스  
이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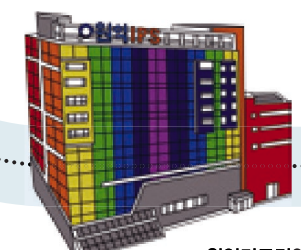
원익머트리얼즈  
고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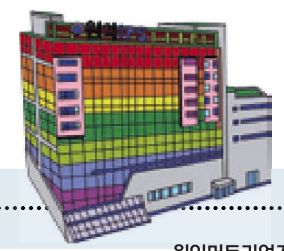
원익머트리얼즈  
김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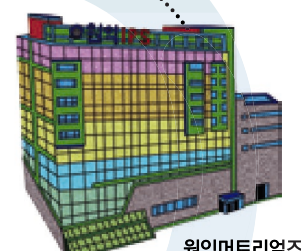
원익머트리얼즈  
권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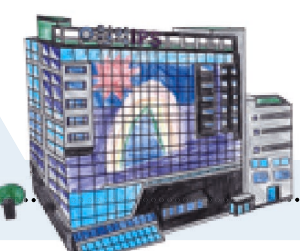
원익머트리얼즈  
박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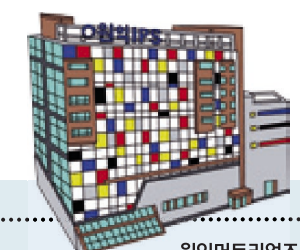
원익머트리얼즈  
김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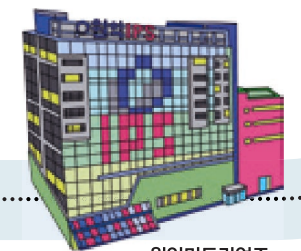
원익머트리얼즈  
김무성



원익머트리얼즈  
신진섭



원익머트리얼즈  
한정현



원익머트리얼즈  
황충

# Thanks for U

원익인은 여러분의 열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 호를 읽고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께 선물을 드려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보내실 곳 - 사보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  
people\_page@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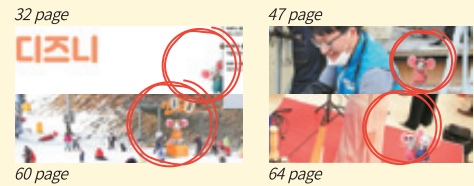
보내실 때 - 코너제목/ 이름/ 소속/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선물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 참여는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바로 보내기** 해보세요. \*문자보내기->**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피플페이지 메일**을 넣어주세요.  
코너 추천·사연은 기한 없이 보내주세요.

**지난호 참여자** 스타벅스 상품권 2만원권(12명)  
**보스 vs 리더** 이승현 (원익홀딩스)  
김형진, 홍성수 -추천

**그래잇된** (씨앤에스랩)  
한세운, 노주영, 구홍은, 정상길, 손명수  
장재운, 박혜리, 정순호, 김성훈

**응모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7명)  
**숲은 캐릭터** 송영권, 정임숙 (원익큐엔씨)  
정가림 (원익홀딩스)  
이다영, 남희진, 김혜경 (원익큐브)  
정인욱 (원익아이피에스)



**컬러링** 스타벅스 기프트콘 2매씩(11명)  
(원익머트리얼즈)  
박종국, 김무성, 황충, 한정현, 고근희,  
권봉진, 김강민, 신집섭  
서재원 (원익홀딩스)  
안희태 (원익)  
박다운 (원익투자파트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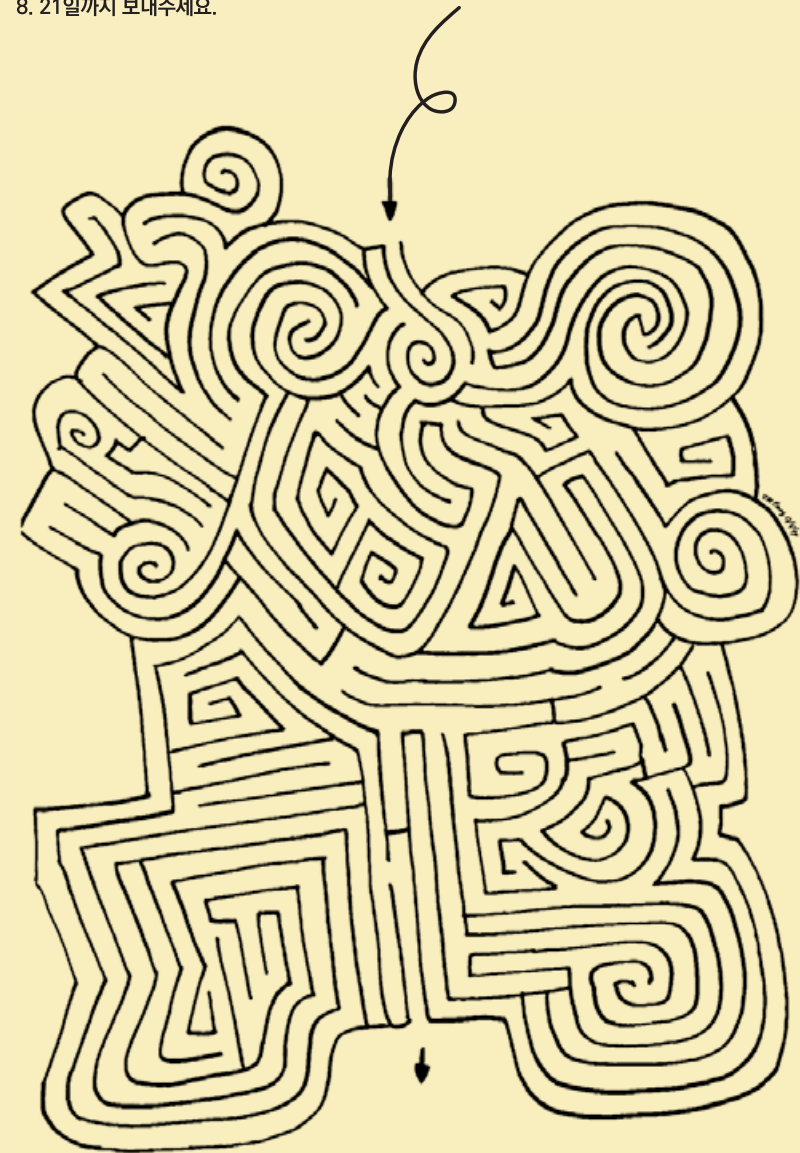
스타벅스 기프트콘 7매씩(1명)  
**표지 선정작** 이유빈 (원익큐엔씨)

**사보 후기** 스타벅스 카라멜마끼아또 기프트콘  
김민호 (원익머트리얼즈)

원익머트리얼즈 김민호 부장입니다.  
2020 사보를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원익 꽃필 무렵 코너에서 패기 있는 신입사원 모습을 보니 예전 생각도 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신 신입사원분들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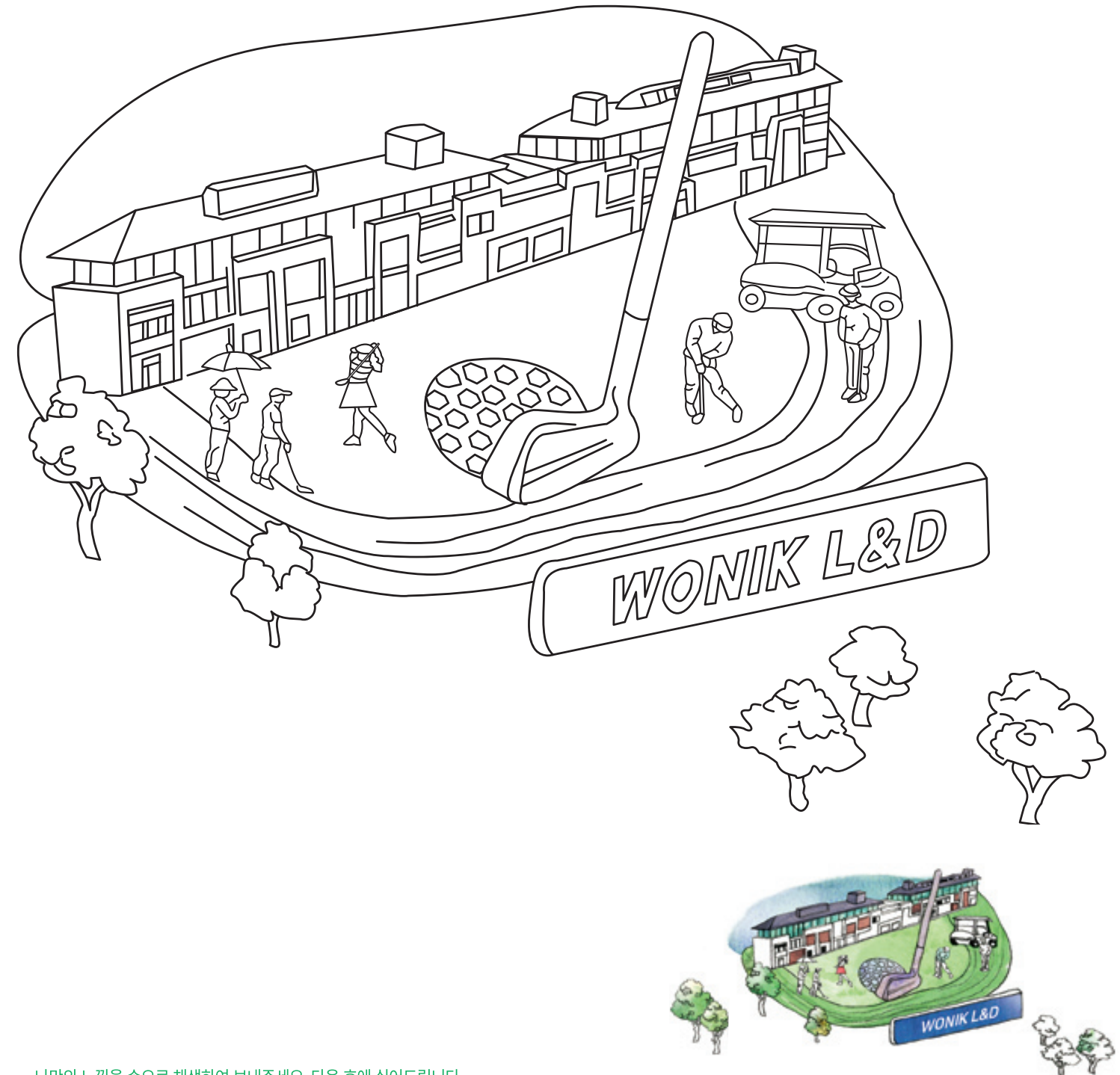
## 미로 찾기

미로를 탈출하신 분께는 더운 여름을 날려버리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려요.  
8. 21일까지 보내주세요.



심리학계에서는 예전부터 치료에 그림과 색칠 놀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색칠하는 작고 정밀한 움직임은 대뇌 피질 영역을 자극해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며, 색을 칠하는 것만으로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큰 사회의 구성원으로 속해있는 지금, 자신만의 뚜렷한 성취나 성과를 느끼기가 어려워 스스로 능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런 심적 부담감을 컬러링으로 채워보세요. 앞으로 제공하는 원익 각 사 드로잉을 자신만의 색감으로 채우며 어렸을 적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 Coloring



나만의 느낌을 손으로 채색하여 보내주세요. 다음 호에 실어드립니다.

표지에 선정된 분께는 **스타벅스 음료권 5매**를, 사보에 게재된 분들에게는 음료권 2매씩 보내드립니다.



# CONGRATULATION!

## WONIKIN!

‘비즈니스계 오스카상’ Stevie Awards 수상을 축하합니다.

지금처럼 원익의 내일이 빛나기를

2020  
GOLD STEVIE® WINNER



원익 사보 「원익인」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즈’ 금상 수상